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人兼編輯人 方應謨 印刷人 金炯進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電話 本局 二一九一 / 外事部 本局(光) 二二九七 / 振替 京城一七九九番 八七八
〈購讀料〉 一箇月金一圓 / 六箇月 金五圓七十錢 / 一箇年 金九圓七十錢
〈廣告料〉 普通十五字 一行一等 一圓八十錢 / 特定 一行一等 三圓 / 特定 一行一等 二圓

社說

歐洲政局의 焦燥

—不安의中心은赤化恐怖—

一

西班牙의 左右兩派의 鬪爭은 어느쪽의 勝利로 도라갈는지 또는 언제나 結末될는지 現下事態下에서는 推斷키어려운 狀態에잇다 이事態는 歐洲의 팟시스트國家와 및 人民戰線 乃至社會主義的傾向을가진 國家의 焦燥와 不安을 더욱深刻하게하고잇는것이다 卽 軍國的팟시즘의傾向을띈 西班牙의 叛亂軍의 叛起가 人民戰線派인 政府軍에 依하야 鎭壓되는날에는, 파시즘의氣勢는따에떠러저 이것은自然獨逸伊太利와가튼 純然팟시스트國家乃至奧地利、匈牙利와가튼 半獨裁國家의 統治者의 權威를極度로損傷케하야 그政權維持에不安의 씨를뿌리는 結果가될것이오 이와反對로 팟시스트的軍國的色彩가 濃烈한叛軍의 政權奪取가成就되는 날에는 前途가疑問中에잇든 파시즘의 氣勢를 燎原의 火와가티 擴大高揚하야 人民戰線政府下의 佛國乃至이와類似한 白耳義、데모크라시를 把持하고 나가는 젝코슬로바키아 및 스칸디나비아諸國의 一聯의民主國家內에 公然히又는潛在的으로擡頭하고잇는팟시스트의 意氣를助長하야 그러치안허도經濟不況其他로 不安狀態에잇는 前記諸國의 內政을더욱混亂케맨들念慮가잇기때문이다 그러나 一層重要한問題는 暴力에 依하야 政權은 獲得될수잇다는 鑑鑑을맨드는것은 民主國家의人民에對한 가장危險한 敎訓이되는點이다

二

西班牙動亂의 推移에 對하야 自國國內의일과 다름업시緊張한 注目을하고잇는 諸國家中에잇서서도 가장代表的인나라는 佛國이다 佛國國內의 파시즘의 脅威는 레옹·블룸內閣의 팟시스트團體解散에依하야 表面 鎭壓되고잇는듯한外觀을 띄고잇스나 드라·록大佐를 首領으로한 義火의 十字團과루·노엘一派의 新社會黨과, 라·부리氏를中心으로한共産黨反對派는依然이 一大反人民戰線을 結成하려는中에 잇는바 블룸內閣의 經濟政策이 選擧民의期待에離反되야 그支持가 薄弱하여지는 때는 이들이 猛然히擡頭하는 絶好의 機會가 되리라는것은 去七月二日 無名戰士記念日 巴里에서演出된 파시스트와警官隊의 大亂鬪로도 그一端을 볼수가잇다 이러한파시즘의 組織的力量의 脅威下에잇는 佛國의人民戰線內閣은 西班牙의 叛軍이 勝利하는날은 外部로는나치스獨逸의 强化한 攻勢、內部로는 파시스트의 脅威에直面케되야 腹背受敵의 苦杯를마시게될것이다 더욱이 地理的으로도 西에 팟시스트西班牙 東에 나치스獨逸、팟시스트伊太利、半獨裁國家 墺、匈兩國等에 依하야 完全히 包圍될에 잇슴이랴? 最近의 外電을 綜合하면 요새 佛國은 波蘭과의 友好關係增進에 相當한 努力을 傾注하고잇는데 이것은 蘇聯과 小協商國과의 聯携만으로는 佛國은 獨伊에 對하야 戰略的으로 너머나 孤立되는것이기때문에 獨逸과 蘇聯의 事態가 勃發된境遇에 地理的으로 가장重要한地位에잇는 波蘭의 協力을어드려는 意圖인듯하다。波蘭은 一九三四年 一月獨逸과 獨波間에對한 十年間의 不可侵條約을 締結한以來 蘇聯에對한 共通한 敵對意識이 有效하게 作用하야 親佛에서親獨으로 轉向하고 同時에 佛國도 이로因하야 波蘭에 對한財政援助를 中止하엿든것인데 이제다시 佛波財政協力問題를協議하려하는것은 現歐洲政局에對한佛國의 焦燥가 波蘭에 對한從來政策에까지 突入한것이라할것이다。佛國에 併行하야 佛國에못하지아니하게 西班牙動亂의推移에 重大關心을가지고 其一의境遇에 파시즘의 [illegible]하고저 焦燥不安하고잇는 蘇聯은 [illegible] 獨逸、伊太利는 괴벨스獨逸宣傳相의 [illegible]에依하야 獨伊를 中心으로한 全歐洲파시스트的國家의 一大聯合陣營을 計畫하고잇다。이 兩陣營의 不安과 焦燥는 遂히 [illegible] 파시즘과 社會主義를 中心으로하야 再編成하려고 하고잇는것이다。

中國側、成都事件을 局地的解決方針

四川當局侮日的四條件提出

現地官憲과居留民은激憤

【上海二日發同盟】中國側은 須磨南京總領事의 抗議에 對하야 誠意로서 成都事件解決에 當하겟다는 言明을 하면서 裏面에서는 地方的問題로 局地的解決을 策하고저 成都地方官憲에게 密令을 發하야 日本重慶領事官當局과 事件의 善後折衝을 하려고한것이 判明되엿다 卽四川省政府秘書長 鄧漢祥氏는 一日 成都의 日本側調査員에 對하야

一、暴徒中 犯人이라고 指目되는 二名을 逮捕하야 銃殺에 處하고 殘餘의者의 逮捕에 努力中이다

二、暴徒는 軍警警備로서도 制止할수업는 不可抗力이엇스므로 此等責任에 對해서는 中央政府의 處斷을 기다린다。

三、遭難者의 遺族扶助는 中國側에서 하겟다

四、負傷者의 醫藥費及 治療中의 生活費는 中國側에서 負擔하겟다

는 等의 極히 侮辱的인 四條件을 提出하고 本國政府에 轉送을 要求해왓다 이에 對하야 日本側은 中央當局의 交涉에 一任한다고 拒絶하엿는데 如斯히 事件의 重大性을 아직 認識치안코 陋劣한 姑息手段을弄하는 中國側態度에 對해서는 斷乎한 決意로서臨하는 以外에 此를反省케할方法이 업다고 現地官憲과在留民一同은 다함께憤激하고잇다

三省協力調査로 報告二三日延期

【東京電話同盟】外務省으로부터 成都에 急派된 松村書記官糟谷領事는 一日 重慶에 歸還하야 調査報告를 行하기로 되엿던바 陸海軍兩當局도 外務省과 協力하야 實地調査를 하기로되어 漢口駐在中津海軍 渡陸軍兩武官을 成都에 急行케하엿스므로 松村總合調査員도 다시 愼重調査를 行코저 兩三日滯在하기로 되엇다고 二日 外務省에 公電이 잇섯다 따라서 兩調査員의 重慶歸還을 기다려 外務省에서는 곳 同報告를 基礎로 陸海外三相關係者의 重要協議會를 開催하야 中國各地의 進言도參酌해서 重要訓令을 調製할 豫定이던바 이가티 重慶歸還이 延되엇스므로 三相會議의 開催를 四日頃까지 延期하고 그동안에 다시 諸準備에 萬全을期하기로되엇다

西班牙動亂畫報

(上)마드리드市의 女子義勇軍의 一隊、(中)우리도市의 女子義勇軍이 叛軍에 應戰하는것 (下右)타리에르港에서 叛軍에 加擔한 將校들을 監禁하고、共産黨式凱歌를부르는 潛水艇의 人民戰線派의 水兵들 (下左)政府의 맨든쾌러스를바리케트로하고 叛軍의 進擊을 防衛하는 우리도市의 政府側義勇軍

叛軍이룬市總攻擊

政府軍必死防戰

空陸에亘한激戰展開

【앙데南佛一日發同盟】벨스케라將軍麾下의 叛軍의 攻擊은 이룬市에 對하야 모 一日未明부터 再次開始되엿다 叛軍의 裝甲自動車五臺는 全砲門을 開하는同時에 市內各要地에 十字火를 내리쏘고잇슬때 카프로니와 폭카軍爆擊機六臺는 政府軍의 重要據點 과다르베롱塞에 猛烈한 空爆을敢行하야 政府軍도 곳必死의 防戰에 努力하는 同時에 市의咽喉를 扼한 산、마르샤의 叛軍陣地에 機關銃을 猛射하얏다 兩軍의 勢力은 伯仲하야 戰鬪는 正午에至하여도 비꼿나지안코 午後에 叛軍은 다조소아河에 沿하야 조금前進하야 이룬市에至하는街頭에 不絶히 砲擊을 加하야 政府軍의 陣地를 斷絶할 作戰을 取하엿스나 午後四時頃에 政府軍飛行機三臺가 산·세바스티안方面으로부터 飛來하야 叛軍陣地에 爆擊을 敢行하엿다 이리하야 兩軍이 對峙하야 夜間이되어도 戰鬪는 依然 繼續되고잇는데 이날의戰鬪의 兩軍損害는 甚大하다고보인다

칼·라데크氏等에는 寬大히處分

리트비노프氏調停으로

【巴里一日發同盟】蘇聯反幹部陰謀事件으로 過般 銃殺에處刑된 지노비에프氏以下 被告의陳述로 赤色論壇의 第一人者 라데크氏를 爲始하야 소코르니코프、비아타코프、부하린等 有力者가 事件에 關連하엿든것이 判明되엿다 外交界의 情報에 依하면 其後 리트비노프外務人民委員이 調停에 努力한結果 스탈린書記長도 寬大한 處置를 取할 意向이라고 傳한다 라데크氏는 病으로 누어잇스나 부하린氏等 容疑者와함께 責任을 負하고 公的生活로부터 引退하리라고 觀測된다

亞洲司長의要求를 大使館當局서一蹴

【上海二日發同盟】大使館發表=國民政府 外交部亞洲司長 高宗武氏는 一日午後三時半 官邸에 川越大使를 訪問하고 今回事件에 關하야 中國은 이를自發的으로解決할 意向이다 今回의事件에 依하야 日中國交調整에 支障을招來하는 것을 避하려고 思하므로 本事件解決에 對한日本側의 希望을 듯고싶다 고日本側의 要求條件을 打診하려하엿스나 川越大使는 아직 外務省으로부터 訓令이 오지안코 또現地調査報告도終了되지못하얏다 하야 中國側의 要求를 言下에 一蹴하고 다시 中國新聞에 國民政府의 新聞指導에 關하야 事件을 歪曲함은 不可하다 고 警告하야 中國當局에 嚴重反省을促하고 三十分後 會見을 終了하엿다

日中關係調整의 根本的解決企圖

成都事件과政府決意

【東京電話同盟】成都事件發生은 爲先 日本國民을 憤激케하게되어 東京有力新聞通信社幹部로된 廿一日會의 政府當局과 民間各團體에도 此際에 該事件을 解決에 政府를 鞭撻하야 根本的解決을 促하려는 狀勢가잇서 이제 本問題를 契機로 國論激化의 形勢가되엇다 政府當局도 이情勢에 鑑하야 現地當局의報告를 督促하고 그報告를 기다려 川越大使에게 訓電을 發하야 南京政府와 交涉을 開始하고 早히 成都事件解決에 끈치지안코 排日侮日의 絶滅을 爲始하야 日中關係의 全面的調整에 關하야 根本解決을圖하려고 決意를 굿게 가지고 잇다

遭難者瀨戶氏談

【漢口一日發同盟】渡邊深川兩氏의 遺骸과함께 飛行機로 成都로부터 當地에 歸還한 瀨戶氏負傷은 漸次 回復되는中이다 記憶力도 回復하엿스나 나는 第一擊을맛고는 暴民中에서 逃亡하야附近의 寺院에 逃避하엿다 그後、四十五圖 司令部公安局會議公署等으로 轉轉하엿다 約二時間동안 暴徒와 軍服의軍人將校로부터 暴行을 바덧다 라고 말하엿다

檢屍醫師診斷書 目下作成中

【上海一日發同盟】渡邊、深川兩氏의 死體를 檢屍한 醫師의 診斷書는 目下 作成中인데 그 內容은 渡邊氏의致命傷은 下腹部 刺傷으로 死亡後 四十八時間、深川氏의致命傷은 右側頭部打撲에 依한 重傷으로 死亡後 五十八時間으로 渡邊氏는 深川氏보다 十時間이나 더 오래살엇든것이 判明되엇다

現地報告를基礎로 外相、國府에問責

外陸海三省會議서態度決定

駐中當局의報告內容

【東京電話同盟】成都事件은 二十四日 勃發以來 旬日을 經過하야 解決은 이以上 遷延을不許하게되엿슴으로 有田外相은 二日繼續하야 外務陸海軍 三省事務聯絡會議를 開하고 斷乎한 決意로써 臨하기로 되엿다 그리고 現地에 急行한 外務調査員은 陸海軍調査員과 聯絡調査키 爲하야 三日까지 成都에 머무르게되엿스므로 松村書記官 糟谷領事의 現地報告는 二日以來 續續 外務省에 到着하야 事件의全貌는 漸次分明하게되엿다 卽

一、今回의事件은 中央及地方官憲이 卽時 日本의旣得權益인 成都領事館의 再開館에 積極的援助를 不否하다는 態度

二、四川省政府當局은 排日暴徒의襲擊에 直面하야 眞히日本人의 保護에關하야 萬全의策을 取하지안햇다 그리고 襲擊事件後 遭難日本人에對하야 取한 措置는 誠意를 缺한바잇다고 斷言한다 그리고 事件은 民黨又는 四川省政府當局의直接的使嗾事實은 目下 不明임으로 端的으로 摘出할수업스나 그 成都領事館再開問題에 關하야 此를旣定事實로 馬耳東風의 態度를 繼續하여온 四川省民이 突然反對態度를 露骨化한것은 事件前旬日에 不過하는 八月十七日以來의일로 中央通信社가 南京政府의意를 受하야 反對的宣傳을 行한後 의일임으로 這間의 事情으로 서 暴徒로하여곰 日本人에對하야 努力을不要하는것은 明白하다

日本政府는 漸次 到着한 現地의 外陸海三省의 駐中當局의報告를 基礎로 마침내 近日中에 南京政府問責의 根本方針을 確立하고 斷乎其責任을 追及하기로되엿다

國府서正式으로 遺憾意思表示

駐日許大使를通하야

【東京電話同盟】駐日大使許世英氏는 二日午後二時三十分 外務省에 有田外相을 訪問하고 今回의 成都事件에 關하야 本國政府의 訓令을接하엿다하야 成都事件은 日中兩國의 國交調整의 重大한 任務를 다하려는 이때에當하야 實로 遺憾不堪하다 政府에서는 事件을 調査하기爲하야 調査員을 現地에 派遣하엿슴으로 近近 詳細報告가잇스리라고 信한다 따라 事實에基한 報告를기다려 誠意로써 事件解決에當할 用意가잇다 事件發生後 張外交部長은 睦隣令을 發布하야 隣邦과의 敦睦에對하야 國民의 注意를 喚起하엿다 右命令은 不幸한 事件이 他에波及하는일이잇스면 大事를招來할것임으로 이를 防止하려는 主旨에서 나온것이다 고 率直히 國民政府를 代表하야 正式遺憾의 意思를表하고 誠意로써 解決에 當할旨를 述하엿다 이에 對하야 有田外相은 日本政府는 日中國交 親善이 漸次 其端緖에 드러가려하는 이때에 如斯한 殺傷事件이 發生된것은 實로遺憾이다 日本側은 目下 現地에 調査員을 派遣하야 調査에 從事하고 잇슴으로 詳細한 報告를 기다려 貴政府에 交涉을 開始할 方針이다 라고 本事件에 關하야 日本政府가 取할 方針과 態度를 表明하고 日本側의 要求에 對하여도 言及하야 簡單히 陳述에 對하여도 이를 聽取하는데 끈치고 會談一時間後 同大使는 同三時半 辭去하엿다

渡邊、深川兩氏 遺骸上海到着

【上海一日發同盟】成都事件의 犧牲이된 渡邊、深川兩氏의 遺骨

一般增稅問題

外地는獨自的으로考慮

【東京電話同盟】稅制改革具體案立案을 急行하고잇는 大藏省에서는 過般부터 拓務省을 通하야 朝鮮、臺灣等 各外地當局에 對하야 日本內地에서는 增稅斷行에 關하야 考慮를 要望하여왓는데 本問題에對한 拓務省及外地當局意向은 大體 左와如하다 卽 拓務省及 外地當局은 日本內地에서 相當한 增稅가斷行되는時 外地側도 考慮하라고 하여도 增稅案의 具體的全貌가明白히 되지못하는以上은 確實한回答은 할수업스나 內外地均衡上 日本內地同樣으로 또共通한經濟的財政的條件에 잇는 것例하면 郵便料金値上其他等에對하야는 當然同率의 引上을斷行할것이나 外地의 一般經濟事情은 日本內地와 著히相異함으로 一般增稅問題에對하야는 外地獨自의 立場에서 考慮할것이라고하고 따라서外地는 稅制改革計의 經入問題와 增稅問題와는 全然 別個의 見地에서 取扱키로되엿다 그리고 現在 一般에傳하는 大藏省의 增稅問題에 對하야는 大體左와如한 態度를示하고잇다

一、法人所得(第一種) 法人淸算所得同種會社의 加算稅率改正

二、第二種所得廢止 第三所得이 統合課稅

三、取引所稅改正、印紙稅、登錄稅等에 關하야 大體日本內地와 同樣으로 考慮

四、第三種所得稅控除引下 朝鮮(八百圓)은 全然考慮外 臺灣은 업다고하고 樺太(現在 一千五百圓)에서 再調査한

五、第三種所得의 累進率引上에는 反對

其他 營業及收益稅負擔其他新設稅에 對하야는 獨自의立場에서 考慮한다

二十一億弗

米豫算計上變更發表

三六—七年度의赤字

【華盛頓一日發同盟】루즈벨트大統領은 一日 一九三六—七兩年度豫算計上變更을 發表하엿는데 이에 依하면 今年一月六日 議會에 送付한 豫算報告書에서 暫定的으로 十億九千八百萬弗을計上한 一九三六—七年의 歲入不足額은 二十億九千七百萬弗로 訂正되엇다 이는 今年六月로서 終한 一九三五—六年度 國庫 現計 赤字 四十七億六千四百萬弗에 比하면 二十六億六千七百萬弗의 激減에 當하야 一九三七年六月三十日의 國債現在高는 三百四十一億八千九百萬弗이란 未曾有의 巨額에 達할것으로보인다

南總督以下의 四班水害慰問日程

水害慰問次 總督府首腦部의 現地慰問은 總督、總監以下 左의 四班으로 分하야 現地를仔細히 觀察하고 罹災民을 懇篤히 慰問하기로되엇다

一、南總督

二日午前九時 自動車로 官邸出發、加平을 經하야 春川、原州로 向하야 原州에서 一泊 水原 驪州를 慰問 富永學務局長 鹽谷秘書官同伴

一、大野政務總監

一日夜十時五分發三浪津으로 向하야 慶南各地를 訪問 天谷秘書官同伴

一、矢島農林局長

一日午後十時五十分發 全南全北地方에 四日間의豫定

一、大竹內務局長

二日午前十時五十分發 慶北大邱 金泉等 慶北地方을 慰問 四日間豫定

拓務省官制改正 朝鮮關係分

【東京電話同盟】一日閣議에서決定한 拓務省關係 官制改正의內容은 左와如하다

一、朝鮮總督府稅務官署官制中改正의件

一、諸稅事務增加에 伴하는 關係十八名增員의件

一、朝鮮總督府稅關官制中改正의件

一、龍塘浦에 稅關出張所 新設 其他 事務官補 監吏各一 技手二 增員의件

一、朝鮮林野調査委員會官制中改正의件

一、同委員會事務減少를 爲한事務官 副事務官各一名減員의件

文官分限令最初適用

咸北鏡城郡守에 對하야 二日附如左히 發令되엇는데 朝鮮에官吏身分保障令이 施行된後 最初의 文官高等分限委員會의 決定에依한것이다

鏡城郡守 徐炳玹 文官分限令第十一條第一項第四號에 依하야 休職을 命함

人事·集會

◆張穆氏(辯護士) 二十八日江陵에서 水災로客死別世

夕刊後市況 二日

◇大阪短期(前引)◇

大新	六八五〇	(不變)
鐘新	一六五二〇	(不變)
日産	八一七〇	(不變)
東新	一二六六〇	(不變)

◇名地期米(後引)◇ 下期 三一九二 名古 三一六五

◇橫濱生絲(後引)◇ 當限 七〇八〇〇 先限 七〇九〇〇

◇福井人絹(後引)◇ 當限 六三〇〇 先限 六〇四〇

二十一日會 臨時總會를開催

【東京電話同盟】成都에서 이때 日本人虐殺事件은 中國最近의 對日動向을 端的으로 表明한 것으로 日本側輿論을 激昂하고잇는데 都下有力新聞、通信社 幹部로서 組織된 二十一日會에서는 三十一日午後三時부터 日本俱樂部에서 臨時總會를 開催하고 成都事件에 對한 二十一日會의 意思表示方法에 對하야 協議한 結果 [illegible] 中國側輿論[illegible]에서 [illegible] 하게 [illegible] 主張하야 兩者의 意見은 完全히 對立되엿다 [illegible] 本問題의 徹底的解決을 [illegible]하야 政府를 [illegible]하는決議를 可決하고 다시 一日正午 同會員 [illegible]는 右決議文을 携帶하고 首相官邸에서 廣田首相을 訪하야 有田、寺內、永野各相과 會見하고 此를手交하야 政府의 善處를 要望하엿다

陸海外三省 共同으로實情調査

【重慶一日發同盟】三十一日午後七時頃 中津海軍武官은 成都에 到着하야 松村書記官과 함께 陸海外共同調査를 하려인데 三氏는 眞相에 關하야 詳細調査한後 三日重慶에 歸還하야 調査에依한 現場의 模樣을中央에 報告하기로되엇다

同盟通信社長 岩永氏推擧

【東京電話同盟】社團法人同盟通信社에서는 二日正午부터 東京會館에서 第六回 理事會를 開催하고 創立以來 缺員中이든 同社社長에 滿場一致로 現專務理事 岩永裕吉氏를 推擧하고 또常務理事로 새로 前墨西哥公使 堀義貴氏를 選任하고 卽時 正規의 手續을 밟기로 되엿다 그리고 同社에서는 今秋總會後에 臨時總會를 召集하고 定款一部改正을 行하고 새로 理事會長을 廢하고 會長、副會長制를 設할터이다

[illegible] 田中氏를 실은飛行機는 一日午後五時半 上海郊外飛行場에 到着하엿다 飛行場에는 [illegible] 司令官을 爲始하야 官民各團體代表等數百名이 出迎하엿다 中國側은 飛行場一帶에 臨時戒嚴令을 布하고 警官隊를 派遣하야 警戒케하엿다

中國側諒解交涉 喜多武官이一蹴

【上海二日發同盟】川越大使를 官邸에 訪問하고 成都事件에 對한 日本側의 意向을 打診하려하얏든 外交部亞洲司長 高宗武氏는 다시 二日午前十時 喜多大使館附武官을 訪問하고 同事件에對한 國民政府의 解決方針을 說明하고 諒解를 求하엿다 喜多少將은 現地調査의 完了를기다려 正式外交交涉이 開始될터임으로 其以前에 個別的意見交換을 함은 無益하다고 答하야 中國側諒解運動을 一蹴하고 會見은 三時間에 亘하야 高氏는 辭去하엿다

蘇聯軍越境

【新京二日發同盟】關東軍發表=八月三十一日 午前九時 興隆屯東側地區에 蘇聯邦兵 二名이 越境하야 樹木을 伐取하는것을 日本步哨가 發見하고 注意식히기爲하야 小銃一發을 發射하엿든바 卽時 叢林中에 자최를감추고 다시 其方面에서 騎兵五名 小銃士 約二十名이 出現하야 東方에 對峙함으로 日本側은 이에對하야 兵力을 增加하고 警戒中 同十一時四十分 다시 前記場所에 또 二名이 越境하야 옴으로 다시 一發을 發射하엿든바 叢林中에 자최를 감춘後 十分만에 四名은 樹木을 가지고 蘇聯邦領에 退却하엿다 다음에 一日午前 興隆屯에 又復小銃一發이 飛來하엿다

靴に文夫をする HHH サンエッチ靴クリーム
삼엣취 구두크림
本舖 東京 株式會社 新藤商店

死穴一步前同胞를 塗炭慘境에서 救하자!

일、이차 풍수해를 통하야 남북 조선에서 들려오는 참절한 재지의 단장비보(斷腸悲報)는 각일각으로 그심각한 정도를 더하야 오직 모골을 송연케할뿐 억색한 우리들의가슴을 쥐어뜻고잇스니 사선에서 방황하는 재지의 구십만 생령을 구하자는 순정(純情)의 불으지즘은 누구의입에서나할것업시 이구동성으로 번저나가 이제 그반향은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크게적게 들려오고잇다!

자비의온정이란 혈맥만이치라도 갓지아니한 수마의 혀끗헤 유린을당한 동포가 얼마인고? 죽은사람、상한사람、살엇는지 죽엇는지 그소식조차알수업는사람이 한처서 륙천여이란 일족이 긔록에서도보지못한다수한생령의 손해를본것은 말고라도하로스밤사이에 수백년전래의 정든집과 가장즙물과 그놀생활에 전희망이되어잇는 부모처자를 탁류에떠나려보내고 한울을울어러 통곡하고 저주하고잇는 구십만의생령은 지금당장구제의 손이뻐치지안흐면속절업시 죽엄의구렁에서 한마는 최후의비극을 짓게되는 그비에서잇다 인간최대의 비극을、고잇는 그들! 비가 머젓다하야 집에들어간다한들 쓸러나려간 뷔인터전이 현실로게눈아페 벌려잇슬뿐이고 눈아페 어린거리는 자비한어머니의 얼골은、우슴띄운 안해의얼골은、재롱떠어리의 아들딸들의얼골은 어데가서 차저볼고! 언어(言語)를 초월한 재지의 모든참경은보지안허도 그정상이 머리속에서 전개되어 행렬을 짓고잇다。

게다가 어제부터 양지어시 퍼붓는 제삼차의 마우(魔雨)는 지금 다시 락동강연안을 중심으로 그폭위를다하고잇스니 먹을것이 업고、입을것이 업고 거접할곳이업는 이참혹한정상우에、병마와 함께 사정어시 내리퍼붓는 마(魔)의 폭우는 오갓 그잔인성을 마음것 발휘하야 이제야 비가 머젓는가하고 사기(死氣)속으로 바닷가로 유벽한곳을 차저 갱생의 의기를 가지고 거접할 토막을 세우려고 하는것조차 못내 파괴 하고야말 기세를보히고 잇는 살풍경인 재지의 참상!이다。

이처참한정경은 보고듯는것으로 족할것이아니다。 이러한一한겨레가 당하고잇는 최대의비극은 한겨레의 따듯한조긔로어루만지는때에비로소 그곳에 인간최고의 존귀한 미덕(美德)의 빗남이 잇는것이니 눈을감고 묵상하라! 혈맥은 구십만재민이 탕탕속에서 모든것을 파괴당하고 주림과치위에 못견데어 울고 붓고 안까님쓰는 정상이 력력히 손에쥐어지는것가티 떠올으지 안는가?

그럼으로 이참상을 보는 우리들로서는 한벌의 옷、한푼의돈、한줌의 쌀이라도 조타! 한겨레로서 모든 상정(常情)을 총동원함으로써 그들 구십만재민에게 따뜻한 구원의 손을 벌리자!

때는 수저할때가 아니다 개인으로서、단체로서 우리들의 모든힘을 다하야 구호의순정(純情)을 쏘듬으로써 본분(本分)을 다하자!

이러케 함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한울타리안에서사는 〃보람〃을 자랑할수 잇는줄안다…

洛江沿岸僻地災民 飢寒到骨의慘狀

本社釜山、金海、梁山、密陽四支局에서는 決死的救護班組織救濟着手

【釜山에서特派員鄭永講發電】락동강(洛東江)류역에잇는 각벽지에는 수천명의 리재민이 식량결핍으로 기아에 빠저잇는데 교통불통으로 구제의손이 밋지지못하야 오직죽엄을기다리고잇는 참상을 연출하엿다 이들을구호하기위하야 부산(釜山)지국이 중심이되여 락동강류역에잇는 김해(金海) 량산(梁山) 밀양(密陽)의세지국장과 나는구호반을조직하야 이일오전열시 구포(龜浦)에서 발동선동강환(東江丸)을빌린후 쌀、보리、반찬감、의류、약품등을만재하고 살가티흐르는 탁류를차며 출발하엿다 수천명의생명을 삼키고도 남은락동강의 탁류는 흙탕나리는 가옥기타잡목과아울러우리구호선의압길을 방해할뿐더러 자칫하면 전복할듯하야위험은 상상이상이다 그러나우리들은 사에직면한 리재민을구하여야겟다는 일념으로 결사적각오하에 만난을물리치고 진행하는중이다

泗川의豪雨 一二三미리

【泗川支局特電】일일부터나리기시작한비는 맹렬히 계속하야나리고잇서 이일아침열시까지의우량은 일백이십삼미리이다 사천(泗川)을중심으로하야 통하고잇는 진주(晋州)고성(固城)각지의 자동차도로는 칠수흘은 파괴되여서 교통은전혀두절되엿다 전번대홍수에 전멸상태를보이엇든 주읍은 또다시 남강(南江)물이넘치여 시내는수국화하엿는데 수만리재민은 폭우를 마저가면서

居接할곳업는 十萬災民戰戰兢兢 魔雨는尙今繼續中

【釜山支局電話】지난번 수해때문에 생긴경상남도관내의 리재민 총수는 이일오후다섯시 현재로 이십칠만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짜를 보이고잇는데 그중십칠만명가량은 모다집과 가장즙물을 떠나려보내고 몸부칠곳이 업는가엽슨처지에 빠저잇다 그리하야 그들은 위선 주저할곳을 정하려고 림시로 산기슭이나 그밧게 바다까가리 사람들이 드러다보지안는 유벽한곳을을 차저가서 혀각가리 집을세우기에 바쁘고잇든중 또박게도 하로전날 오후세시부터 또다시 엄습한 폭우를 맛나게되자 두번이나 물난리에 지처빠진 리재민일동은 정신을 차릴경황이업서 오직 하늘을원망하고 땅을두들겨 호곡할따름이다 게다가 각가지병자가생겨서 눈오는뒤에 서리맛나는격으로 정신을수습치못해서 탄식하는 그들의정경은 보는사람으로 눈물을 뿌리게하고잇다。

비가 아프로어느정도까지 나릴는지? 예측할수는업스나 만약 이이상 하로나 이틀동안만 계속해나린다면 그들은 모다죽엄의구렁으로 드러갈수바게업다하

산으로 피난하고잇다 비는여전히계속하고잇다

水防團、農校生總動員 堤防에補强工作

送電線아직復舊되지못하야 晋州는如前暗黑世界

【晋州에서本社特派員李鍾模特電】진주(晋州)남강(南江)의 수위는 이일오후한시 륙미돌이십까지 부러서 대단위험한상태를보이고 팔미돌을 돌파하리라는 념려를주고잇는바 가튼 두시이십분에는 다행히오 메돌구십까지지주럿다

그러나 아직 비는여전히 나리고잇서 결단코 안심할수는업다 소방단과 수방단과 농업학교생도들은 아침부터 총출동하야 전번홍수에 결괴당한 앵정(櫻町)의제방의 보강공사(補强工事)를 하고잇다 전등은 오늘저녁까지 송전(送電)될가망이업다 이로말미암아 수라의지주는 암흑도시화(暗黑都市化)가되어잇다

떨나무주으러다가折脚

【三浪津에서釜山支局電話】수해로말미암아 삼랑진역(三浪津驛)구내에 피난하고잇는 리재민중 화물차안에수용하고잇는 삼랑진 송지리(松旨里)김도역(金道易)의 둘재이들조어(鐘業)(七)은 화목(火木)을 주으려고 화물구루마속에 드러갓다가 그구루마가옴지기는바람에 한쪽다리를 상하야 즉시 응급치료를하엿스나 생명이 위독하다 이광경을본 리재민들은 대소동을 이르키여 일시는 대혼잡을 이루엇다

여 리재민자신(自身)들은 물론일반은 크게 근심하고잇다。

그리고 하로날오후세부터 이튿날가튼 세시까지사이에 각지에비나린 분량은 ▲南海百四十「미리」▲陜川百五十「미리」▲河東二百「미리」▲咸陽百六十「미리」▲陜川百三十「미리」▲三千浦百十「미리」▲宜寧百五十「미리」▲山淸百四十四「미리」▲晋州百二十「미리」▲釜山五十「미리」▲馬山四十五「미리」▲密陽五十「미리」▲咸安七十「미리」등으로 그밧게 지방들도모다게 이고 잇다。

食糧을運搬救護 馬山、昌原서冒雨活動

【二日蓄馬山에서本社特派員嚴尙燮發電】이번폭풍우에 여지업시 유린당하고、아직놀낸가슴을 안정치못한 마산에도 이른날아침부터 또다시 맹렬한비가 쏘다지기시작하야 한때에는성남강(城南江)이범람할위괴에 직면하야 삼만부민은또다시 공포에싸혀잇스며 저번비바람에쓰러진 보통학교를 비롯하야 시내각학교는 이학과수업을 시작하자마자 다시 휴교(休校)하는등 일대소란을 이르켯다 맹렬한폭우를 무릅쓰고 마티 본사구호반에서는 이와가산부와 창원군(昌原郡)의두반에 난노하 응급책으로 양식을 화물자동차에 만재하야 일대는창원군북면(北面)피난지에 향하엿다 더욱우리들의 가슴을찌르게한것은 마산축구단원(馬山蹴球團員)김영달(金榮達)외사인이 시내각처를 호별방문(戶別訪問)까지 해뼈는리재동포들에게 배급하여 달라고 본사구호반에 긔탁한사실이다

災地를노리는 惡性紹介業者 警務當局取締를嚴命

수해바든 리재민들이 궁상에 빠저잇는것을 긔회로 나뿐소개업자들이 횡행하면서 리재민의 자녀를 끌어내는 종래의례에 따라 경무국에서는 그경게방지할것을 이튼날 각도지사에게 통첩햇는데 애국부인회에서는 특히 리재민들의 자녀들을위하야 취직알선을 하고잇는중이다。따라서 일반은 못된 소개업자들의 감언리설에 속지말기를 바란다고한다

壽松町에棄兒

이일오전 여섯시경에 시내 수송동(壽松町)일백삼번지의이호 장한숙(張漢淑)의집 대문간에 누구인지 나흔지 한달밧게 안되는녀아를 버려두고간 사람이잇서 소관 종로서에서는 아이는 경성부로 넘기고 범인을 수사중이다

前後二次의被害 總額八千萬圓(概算)

農作物、土木、鐵道、家屋、船舶等 當局은慘禍根絶策立案中

이번희유의 대수해는 그실정이 판명됨에따라 참화가 더욱격심하여가는데 그응급적또는 항구적대책에대하야 예의조사를 진행하고잇는바 전후두번의 총피해는 농림 토목 철도 가옥 선박등 이가장다액에달하고 전답의를 농작물등에 잇서서도 약사천만원 토목은이천만원 철도는 일천만원 가옥선박등을합하면 실로팔천만원의 거액에 달한다는 개산이되여잇서 총독부에서는도저히 응급경비 제이예비금 이백만원쯤으로는 문제가안됨으로 십일년도추가예산을 상당한 거액으로 계상할예정이다 근본대책에대하야는 위선 명년도예산부터 점차시작하야 례년과가티 습래하는수해의 참화를 근절케하기위하야 관계각국에서 방금그구체안을 세우랴고 노력하고잇다

全義金永五氏 十圓을寄託 本社全義支局에

【全義】금년의 삼남각지의수재가 얼마나 심각한참상임을 날마다 본보지상을통하야 보도됨을보고 전의유지김영오(全義有志金永五)씨는 지난삼십일에현금십원을 본사를통하야 재지(災地)로 보내달라고 본보전의지국으로 가저왓다

朴興植氏三百圓

시내 종로네거리 화신백화점(和信百貨店)사장 박흥식(朴興植)씨는 이일오후에 금삼백원을 본사에 긔탁하야 재해동포구제의 적성(赤誠)을 표시 하엿다

缺席生多數로 一部學校休校

晋州風水害의一現象

【二日晋州에서 本社特派員 李鍾模發電】진주읍내에 잇는 각학교에서는 하로날부터 이학기수업을 시작하엿는데 결석생이 만타 이것을 각학교별로 보면 일신(一新)녀자고등보통학교에는 재적생백팔십칠명중 하로날의결석생이 륙십아명 이튼날이 칠십구명이며 진주고등보통학교에서는 재적생 사백오십칠명중 첫날에는 팔십구명 이튼날에는 백사십사명이 결석이고 제일보통학교에서는 일천오백명가운데서 첫날에는 백칠십삼명이 결석이고 제이보통학교에는 사백삼십칠명의 첫날결석이 삼십이명 농업학교(農學校)에서는 나흘동안 림시휴교를 하엿다 농업학교 생도들은 리재민구호와 제방보강작업(堤防補强作業)에참가 활동중이다 이제 학생들의 결석원인을 보건대 교통두절과 시내수해로 말미암아 가정형편으로 볼수잇스며 엇쨋든 이와가튼 대량결석은 일즉볼수업는 풍수해가나은 비참한 현상이라고 할수박게업다

仁川小舞衣島에서「다이나마이트」爆發

【仁川】인천근해에잇는 소무의도(小舞衣島) 채석장(採石場)에서 지난삼십일오후사시경「다이나마이트」의상개가 폭발되야 부근통행인 유해문(兪海文)을즉사식히엿다는 급보를접한 인천경찰서에서는 동해림(東海林)보안주임 길강(吉岡)부장이하수명이오전구시경비선 작환(鵲丸)으로현장에급행조사중이라는대 조사대가귀환하기전에는피해정도등을자세히알수업스나 사건만은 중대성을띄이고 잇는듯하다한다

二日京城에 地震!

微弱한程度

【京城測候所發表】이일오전십일시사십사분사십오초부터 약오분가량 경성에 지진이 잇섯다 측후소지진계의 긔록에의하면 최대진폭(震幅)은 륙크론이(六、一크론)로 진앙지(震央地)는 경성에서 아백오십키로의 지점이나 방향은 알수업다 그정도는 극히 미약한것이어서 보통으로는 그리 감촉할수업는것이나 고층건물에서는 다소 감촉될수잇는 정도로 시내에서는 경성우편국상층에서 약간 감촉되엿다 한다 근자에는 별로지진이업섯고 이정도의 미진(微震)은 조선서도 그리 큰것은 아니다

(사진은 황혼의신무성)

⑮ 靈場에幻想되는 桓雄天降의神話

神火가든화두불을바라보고 冥想은五千年前으로

李相昊記

일홈도 그럴듯한 신무성(神武城)에닷기는 팔월십일일 오후다섯시、우리가잡은로영지는 신무치물(神武畤水)을 북으로끼고 금루매(金樓梅)숲이 푸른융단펴듯이 깔린속에 사이사이 백두산가운데 드러와서는 처음으로 바다이보종 보종마른 풀바를 풀라잡아 로영천막을 간편하게들첫다。

어제나다름업는 통나무 화루를 이곳저곳에서 집컷이타오른다。

고원(高原)이 가저오는 살살한 냉기와함께 밤이차저도렷다。부슬부슬 내리는비소리 숲우흘스다듬고 다라나는바람소리가 나면날수록 두레는더저 막막할뿐이다 어지간한비는 기름마십는다든지 화루불같은 기피도끗업는 어두운대공을 찌르고만잇다。삼엄(森嚴)을넘어서 처참한화광이다。이곳이제단(祭壇)이요 저곳이 신화(神火)라면 밤흠 강신(降神)을할구뷔갓다。

○……○

『녜날도 아득한녜날 우리땅에는 환인(桓因)이라는 신이계섯다。그아드님으로환웅(桓雄)이라는분이 계섯스니 여러번 천하에 뜻을두시고 인간에내려오시기를 원하섯다 그아버님께서는 그아드님의 뜻을알으사 아래로 삼위(三危)따한박뫼가 인간에 넓게 유조할것을 롱촉하시고이에 천부인(天符印)세개를주서보내여 이룸다스리도록하섯다。환웅님은무리삼천을 거느리시고 한박뫼꼭대기 신단수(神壇樹)아래로나려오서서 자리를잡엇스니 이룸일러서 신시(神市)라부르고 그분을 불러서 환웅(桓雄)천왕이라고 하엿다。바람을마른 풍백(風伯)과 비를마른 우사(雨師)와 구름을마른 운사(雲師)를 거느리시고 곡식을주장하시고(主穀…)목숨을주장하시고(主命=福禍=)병을 주장하시고(主病=衛生=)형벌을주장하시고(主刑=法律=)선악을주장하시고(主善惡=道德=) 무릇인간의 삼백륙십가지일을 마타서 세상에 계시면서 다스리섯다 때에 곰한머리와 범한머리가잇서 가튼구멍에 거처를하더니 늘 환웅천왕에게 사람으로 화해주기를 비럿다。환웅천왕은 령겨리운쑥(艾)한줌과 마늘스무쪽을 주시며갈아사대 너이들은 이를 먹으되 백날동안 햇비츨 보지말고 먹으면 사람의 두겁을 어드리라고 하섯다。곰과범은 삼칠일을 기(忌)하고 먹어 곰은 녀자의 몸을 어덧스나 범은 기(忌)를 직히지못하야 사람의 두겁을 엇지못하엿다。곰으로부터된 계집은 혼인할이 업서 매양 단수(壇樹)아래서 아이배기를 비럿든바 환웅천왕은 잠깐화(化)하사 혼인을 하시고 잉태를 하사 아들을 나흐니 일홈해 단군왕검(檀君王儉)이라고하나니……일로부터 비로소〃조선〃이라고 일컷다。』(三國遺事 古朝鮮篇拔萃)

이것은 우리겨레의 발상을 솟되게 또는 진박하게옮긴 가장오랜 신화(神話)인 동시에 문짜로 옮겨노흔 우리겨레의 첫기록이다。환웅천왕이 무리삼천을 거느리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그한박뫼는 이 백두산을 이름이니 아득한 녜날 우리조상들은 어느민족의 신화시대나 다름것업시 온누리를 밝게해주는 해를 섬기고 빗슬섬겻다。만유의 주재자는『해』요 빗치엿다。

『해』는 곳『한울』이요、『한울』은 곳『해』엿다。『해』는『환합』이모도요『환합』은 햇님의 가업슨 은총이엿다。『해』와『환』은 지성(至聖)지존(至尊)의 표상이니『환인』『환웅』은 어설피한 역(譯)으로 원음에 군더더지가 부터지마는 근본에 이러려는만유의 주재자인『햇님』과그 열광(熱光)을 표현한 말이될것이다。

그리하야 원시인들의 순박한생각에 한울을가이하자 햇볼것가이하자는것은 해와 또그빗치환합을섬김에잇서서 모름지기 직힐도리로 생각하엿든것이다。

그리하야 평지보다언덕은『햇님』이 더잘보이고 언덕보다산은『햇님』을 더갓가이 우러러뵈옵게되고 나즌산보다 놉흔산은『햇님』의 보좌압까지 드려놉흔『햇님』을가저 놉흔산 놉흔봉우리는『햇님』례배의령장(靈場)이 되여、역내의 노픈산은『햇님』의 다음가는 거룩한존재가되고『햇님』에게 례배하는노픈산의 숭배로 한거름 다아서게되것이다。

全南에또魔雨 榮山江刻刻으로增水

【光州支局特電】전남(全南)각지에는 일일 오후한시부터 또다시 폭우(暴雨)가 나리여 이일아침까지 이백미리의 우량이계속하야 나리엿다 이로말미암아 각지는재차 수해의 세례를맛고잇다 영산강(榮山江)은 지금계속하야 증수상태에잇다 그리고 제일차호우이래 도내의 선박피해는 류실선이십일척、침몰된것이 사십삼척 행방불명자사십구명 전괴가옥 일천이백이십칠호 반괴가옥 일천이백사십일호이다 비는 아직계속하야 나리고

朝鐵新線着工

조선철도회사(朝鐵)에서는 지난팔월삼십일일 남짜로인가된 황해선(黃海線)동해주—해주(海州)사이와 및 동해주—동포리사이의 중간을 직결하는 삼백십육「미돌」의 새선을 노하지고그가운데다가 청풍신호소(淸風信號所)를 설치한다음 해주와 잇해주항(海州港)사이를 발착하는 려객이 동해주를 거치지안코 직결하는 새선을 통과하는 편리를 엇게될영업을 개시하엿다。

水害救濟金品募集

今番 江原、忠北、全北、慶尙南北等 五道의 大水害에對하야 今十八日 學務、警務兩當局의 主催下에 在京諸日刊新聞社代表가 集合하야 그救濟策을 協議한結果 義捐金募集主體는 財團法人朝鮮社會事業協會로 하나 義捐物品의 募集主體及 義捐金品의 接受는 各新聞社에서 하기로되엇사오니 讀者諸氏의 諒解를 바라오며 兼하야 同日決議要項은 如左합니다。

決議要項

一、募集主體 財團法人朝鮮社會事業協會

二、後援 朝鮮中央日報社、東亞日報社、朝鮮日報社、朝鮮日日新聞社、朝鮮新聞社、每日申報社、京城日報社、各支部에서 依賴하는 地方新聞社、日本赤十字社朝鮮本部、愛國婦人會朝鮮本部

三、募集期間 自昭和十一年八月、八日 至昭和十一年九月三十日

四、義捐金의接受 社會事業協會各道支部、全朝鮮各道府、郡、島、邑、面、主催團體、後援新聞社及團體

朝鮮日報社

白頭山探險映畫 九月三日의招待區域

본사주최백두산 탐험보고강연과영화대회독자공개제사(일구일삼일)은 예정과가티 삼일밤 입곳시밤부터 본사대강당에서 직긔정동의 독자를 초대하야 열기로되엿다

寬勳町 觀水町 長沙町一部 樂園町 慶雲町一部 益善町 臥龍町 授恩町 勸農町 敎義町 薰井町 仁義町 苑南町一部 蓮池町一部 雲泥町

奉天省城門溝에 共產軍二百出現

【奉天一日發同盟】關部本部發表 삼십일밤열시경에 봉천성본계현제사구성문구(奉天省本溪縣第四區城門溝)남방에서 희다(喜多)부대와소정(小井)부대(卄○餘)는 유력한 공산군 약이백명과 마조처서격투하엿다 이전투에서 희다부대의 손해는전사이명 부상네명이다

訂正

본지 이일부 조간삼면에 게재된 시내 당주정회(唐珠町會)에서 수해구제로 의연한금품중 백미(白米)일승오합(一升五合)은 일두오승(一斗五升)의 오식이엿기 이에정정합니다

스포—츠朝鮮年中盛事 水上競技大會

七個中等校·八十健兒가出場 九月六日京城풀에서

스포—츠朝鮮의 年中盛事! 朝鮮體育會主催 第十七回 全朝鮮綜合競技大會의 劈頭를 裝飾할 水上競技는 來六日 午前十時부터 京城府營풀에서 擧行할터인데 同大會의 申請은 昨二日로 마감되엿는데 徽文、二高、一高、中央、養正、中東、中等公民等의 七個校와 一般部에는 普專、醫專等 選手를 合하야 八十餘名이 參加하야 이날의 盛況을 豫期하고잇다

東西中等陸上 九選手出場

大每、日本學生競技聯合 共同主催의 第七回 東西中等對抗陸上競技大會는 來十月十八日 正午부터 大阪甲子園 南運動場에서 擧行할터인데 二十七日午後七時부터 大阪上佐堀 白蘭에서 東西兩軍을 代表할 選手 各三十一名의 銓衡委員會를열고 嚴選한바 西軍「멤버」中에는 前般全日本 中等校競技大會에서 斷然 優勢를보인 朝鮮中等陸上界驍將九名이 西軍에參加케되엿는데 選手名은 다음과갓다 ▲崔學壽、馬鍾瀚(以上養正高普)▲閔康煥、李鍾律、金裕澤(以上培材高普)▲羅潤成(光成高普)▲金源俊(海州高普)▲李常榮(崇實)▲蘇鎭南(京城第一高普)

齒專蹴球敗退

【廣島電話同盟】廣島文理大學主催의 第一回全日本高專蹴球大會第二日은 二日午後一時부터 廣島高校球場에서 擧行한바 이날出場한 京城齒專은 關學과 對戰하야 結局七對零으로 京城齒專이 敗退하엿다

關學7(3…0 4…0)0京城齒專

留學生卓球中止

東京留學生卓球俱樂部主催及雅樂聯合軍과의 卓球對抗戰은 昨二日午後七時부터 鍾路靑年會卓球場에서 擧行할豫定이든바 留學生軍의事情으로不得已中止하엿다한다

北漢山을中心 大遊園地를計畫

百萬圓資本의 會社組織으로

山麓까지 뻐쓰運轉

대경성(大京城)북편에 노피소슨 북한산(北漢山)의 위용은 도회인의 『하이킹·코-쓰』로 절호한 장소임으로 이미등산객이 련락부절하든곳이데 이곳을 유원지로하야 향락의리천지를 만들고자 목하신전의민(新田義民) 호도우차랑(戶島莊次郞)씨등에 의하야 유원회사의 창립준비가진행되고잇다 동회사는 자본금백만원으로 등산도로를 개설한후 다

『뻐쓰』택시-를 산록까지 자유로 운전할수잇도록한후 대경성을안하에 나려다볼수잇는 지대에별장지 유원지를 경영하며 장내에는 『케-불카-』를 놓하게하려는 대계획으로일일에 유력한발기인이 현지를시찰하엿다 그리하여 대체어더한안(案)이섯는지는모르되 관계자들은 계속하야 이실현에관하야 협의중이다

表彰 優勝者에게優勝盃及副賞을授與

妓生들이作黨 劇場에서處女를亂打

【仁川】지난 삼십일저녁 인천부외리(仁川府外里)애관(愛館)변소구석에서 남의처(男의妻)를상영중에 기생십여명이십오륙세되여보이는 규중처녀를 구석에모라너코 엽에닥지못할욕설을하며 뚜들겨 부러트리는통에 일시소동을 일으키고잇슴으로 림석경관이 이를제지하는일변 외리(外里)파출소까지다리고가게되자 기생은 전부 이구석 저구석으로 피하야 결국 김미련(金美蓮)(一七)김향심(金香心)(一七)최금선(崔錦仙)(一八)등 삼명 기생과 피해자인 신화수리(新花水里)최모(崔某)(一八)라는 처녀만을 불러전후사실을 힐문하매 전기최금선이가 뒤에안고잇는 최모라는 처녀의 치마에 당배재를 떠른것이 발단되야 전기와가티 구경왓든기생전부가 덤비여 뚜들겨준것이라한다

仁川近海에서 機帆船衝突顚覆

損害는約五百餘圓

【仁川】지난이십구일 오전한시경 인천을출범한기범선(機帆船)인천부항정(仁川府港町)삼정목구번지 산구초태랑(山口初太郞)의소유선 제이히구환(第二菱久丸)(五二噸)이 항외(港外) 적부표(赤浮標)근방에서 입항하는기선이척을피하라다가 근방에잇든어선 조일환(朝日丸)과 충돌하야조일환은 전복되고말엇다 이에손해는 생어(生魚)삼백원 선구(船具)일백오십원 선체삼십원도합오백원가량의 손해를 당하고부근기선에 구조를바더 전복되어선은 다시이르키고 인명에는아모손해가업서 입항기선에달리여 귀항하얏다 한다

災地同胞爲해 피끓는同情

兩劉氏義捐金寄託

【仁川】변부면 수해로 살아갈수업는 삼남재민의 생활상태는 형언할수업는데다가 설상가상으로 금년에도 재상봉수해를당하야 집도먹을것도 업시도로에방황하는 목불인견의 그참상은본보외긔사로서 연일보도한바어니와 이에 인천부외리(仁川府外里)류창세(劉昌世)씨가 이십원 류금룡(劉今龍)씨가 십원 합계삼십원을 재지에서 울고잇는동포에 전하야달라고 본보인천지국에 의뢰하얏다한다

高麗青年會主催 全朝鮮卓球大會

【開城】고려청년회(高麗青年會)주최인 제사회 전조선 탁구대회(全朝鮮卓球大會)는 오는 십이일 오후한시부터 본관대강당에서 개최한다는바 일반선수는다수참가하야주기를 바란다한다

申込期日 九月十一日까지

申込金 二十錢

仁川海岸에 疑問屍二個漂

【仁川】지난삼십일오전사시경에 소월미도(小月尾島)와 신화수리(新花水里)해안에 두개의 시체가표착되엿다는데 변령이 이십오륙세로부터 삼십세가량의 남자로써 죽은지이십여일은 자세히알수업스나 자살인듯 하다하며 흑자의말에 의하면 한강상류(漢江上流)에서나려온 수해로써인한시체가아닌가한다

人事

▲閔正奎氏(中央醫院醫師) 開業人事次 本報仁川支局來訪

▲能川淸之助(前仁川府內務課長) 始興郡守榮轉人事次 本報仁川支局來訪

龍山公普同窓會

부내룡산공보(龍山公普)에서는 오는엿새날오후두시부터 그학교안에서 남자들에 한한동창회를열리라는데 회비는 이십전식이라고

待望의拳鬪戰 六十名登場

今三日 基青室內링에서

中央基督敎青年會主催의第九回全朝鮮아마츄어拳鬪選手權大會는今三日부터三日間(每夜七時半開始)鍾路青年會館室內링에서 擧行할터인바 이번은 멀리全南潭陽을비롯하야 仁川、汶山、開豐、水色等地에서 無名勇士들이 榮譽의覇權을노리보고出場케되엿고 平壤에서는 宋京燮選手가 必勝의意氣로직이 勇躍參戰할터이며 東京에서는 東京帝拳所屬의朴斗達君、中央에서는 東洋拳鬪會의花形 韓龍河君外十一名이出戰할터로 主催側인青學도는京拳、올림피、亞細亞等을合하야 六十七名에達하는 盛況을이루고잇다

拳鬪大會役員

▲會長尹致昊 ▲副會長具滋玉 ▲委員長李正鎬 ▲本部委員玄東完 金圭冕 李鍾春 徐相天 田麟鎬 崔在煥 李丙三 玄正柱 呂運弘 金應鎬 桂炳鎬 張權 ▲審査委員成義慶 黃乙秀 李一 金正學 李惠澤 金明德 金鴻洛 金振秀 金德銀 鄭憲源 金德仁 ▲計時委員金龍九 全有亮 馬鳳玉 金炯德 ▲記錄委員朴榮鎭 李基占 ▲進行委員許萬鏞 朴昊熙 李正相 金昌煇 金德裕 ▲通告委員延鶴年 徐鋼奉 ▲醫務委員尹商權 ▲接待委員張鍊敎 李性宰 黃泳洙外數氏

◇參加選手氏名

李金龍 金鍾昊 鄭甲均 河大鎬 池龍淳 金熙泰 金昌得 梁敎煥 尹炳求 高炳奎 申元澈 朴龍培 張福童 李仁男 朴學鎬 崔泳學 張英植(以上全部無所屬) 金石成(開豐) 鄭德讓(汶山) 韓啓鉉(潭陽) 河文錫(仁川俱) 朴順喆(仁川俱) 金炳玉(培材) 宋京燮(平壤奬武館) 金甲圭(大東商業) 朴斗達(東京帝拳) 李敏淵(開城商俱樂部) 金觀雲(올림피) 崔良洙(開城) 金洛元(開城) 鄭寶模 朴敎在 崔鼎煥 金圭晶 金基煥 鄭炳泰 韓龍河 呂在德 李龍圭 金萬鐵 姜周禧 方容植 朴春根(以上全部東洋拳所屬) 金明培 徐永祚 金文煥 徐昌昌 許鏞(以上全部京拳所屬) 任大股 尹大炳 朴容吉 綏龍煥 朴容福 孫元俊(以上亞細亞拳鬪所屬) 洪在浩 權重瑞 嚴昌根 金相敦 韓一男 徐相泰 李敬烈 韓俊錫 朴敏善 康仁鎬 金仁鎬 姜潤道 朴鍾勳(以上全部青拳所屬)

學生籠球

九月十六日開幕

中央基青主催의 第十二回全朝鮮學生籠球選手權大會는 來九月十六、七、八、九의 四日間 鍾路青年會後庭코-트에서 擧行할터인바 申請期는 十一日午後四時까지이며 對陣抽籤은 同日午後八時半부터 同會館에서 行할터이라한다 (參加金 中學團貳圓、專門校參圓)

孫南兩君은 各國人激讃의的

京城驛에서佐藤코-치談

伯林올림피마라손에出戰한 孫、南、鹽飽三選手의 指導役으로서重任을다한 佐藤秀三郞氏는 勤務中인鐵道敎習所에 陸上代表選手로 旅程을빨리하야 伯林으로先發하엿다가 二日午前二時五十五分 京城을 通過하야 歸校하엿는데 氏는 올림피마라손制霸의 勢狂과 興奮의 가득찬語調로 다음과가티말하엿다 여러분의 聲援에힘입어 期待에저바림이 업섯슴을 스사로 깃버합니다 孫、南兩君으로하여금 年來의宿望을 完成하엿스니 알호로는 마라손의 覇權을他國에빼앗기지안흘自信을 갓게합니다 孫君은 始終自重하야 하퍼-(英)의 追擊을許치안코 榮譽의月桂冠을썻슴니다 나로서는 孫、南、鹽飽三君이 모다 入賞할實力이잇스면서도 一着과 三着만을 차지한것은 遺憾으로 생각합니다 一萬米레-스를 보고『자바라』가 結局先頭를 달릴것을 豫想하고 警戒하도록하엿슴니다 三十五키로地點에서『하퍼-』가 孫君의 뒤에 달렷스나 孫君은 別로히 빼-스를 그릇하지안코 悠悠히 優勝하엿슴니다 南、鹽飽兩君은 歸還點에서 十六、七番前後를 달리고 잇섯슴으로 一、二、三等을全部獲得할것을 自信하엿드니 南君은 앗갑게도 百米의差로三着이 되엿슴니다 孫、南兩君은 歸에 드러와서도 오히려 元氣旺盛하야 各國新聞記者들에게 [illegible]되엿습니다 그들의 態度와 餘裕잇는 力量에는 히틀러總統을 비롯하야 各國人의 激讃을 바덧습니다 孫、南兩君은 陸上 代表選手와 함께十月一日에 東京에到着할 豫定입니다 (寫眞은마라손코-취 佐藤氏)

飛行船으로 選手輸送計畫

【紐育特電】米國올림픽選手役員「코-취」等二百餘名은「푸레지덴트·루-즈벨트」號로 二十八日 盛大한歡迎裡에 紐育에 歸着하엿는데 陸上競技「코-취」「로-손·로바-트」氏는 말하기를 今回伯林올림픽 競技大會에잇서 米國選手는 善戰하야 그 成績은 大體로 滿足하다 獨逸의 올림픽에對한 周到한準備와 獨逸選手에 良好한成績에는놀랏다 獨逸側의得點이만흔것은 다만 스포-츠全般에努力할뿐아니라 올림픽에附隨되는美術과 其他方面에 注力한結果이다 나는 올림픽競技를過去九回에亘하야 보앗지만 今回의 올림픽會場設備의 完全한것과 觀衆收容力이큰데 感心하엿다 千九百四十年東京올림픽에 對한 獨逸의 準備는 非常하야「쳇페린」飛行船으로서 選手團을 東京으로輸送할計劃을 벌서부터 樹立하고잇다 그리고 日本은 主催側이되므로 伯林大會보다 조흔 成績을 거둘것으로 豫想되는데 日本이 競技種目을 擴張하야 獨逸과가티 各方面으로 準備에 努力한다면『스포-츠』日本의 生命이 一層躍進할것이다。

神宮馬術大會

第一回朝鮮神宮奉贊馬術大會는 來二十六七兩日間 龍山練兵場에서 擧行할터인데 參加規定은 다음과갓다

▲競技種目=細馬術競技、障碍飛越競技、綜合馬術競技

▲參加申込은 九月五日까지 各道廳內各道體育協會로申込할것

投砲丸優勝者西村君 生活難으로詐欺

【大阪】昨年度明治神宮競技大會에서 投砲丸에優勝한 大阪旭區千林町運動選手 西村正平君(二三)은 詐欺容疑者로 天滿署에서方今取調를 박고잇는데 西村君은生活難으로 지난六日 大阪尙美堂에서競技會優勝盃(時價百八十圓)을註文하야 騙取한以外에도『오메가』時計(時價百四十一圓)도 同店에서 詐取한것이 判明되엿다 西村君은 昭和九年度의 投砲丸記錄十三米二八의 保持者로 日本『랑킹』第二位、同十年度에 十三米一九로 第五位에 處하얏든바 大阪市立運動場俱樂部에 所屬하고잇다

今日의運動

▲拳鬪=第九回全朝鮮아마츄아拳鬪選手權大會第一日·午後七時半 鍾路青年會室內링 (觀覽料指定席五十錢、一般及學生三十錢)

一般家庭에普及코자 料理製法講習

本報仁川支局主催로

【仁川】우리의 일상생활에도가 만흔진보를따라 음식물조차 이에병행하고잇다 그럼으로일반가정에서는 각종과자나 료리의제법을 알지못하야 빗싼것을사먹게되는형편이다 항상 이를유감으로생각하고잇든 본보인천지국에서는 오는구월칠일부터 상인간경성베니아장료리연구부 김범진(金範鎭)강사의 후의를바다 작기규정에의하야 강습회를 개최키로하엿다는데 일반가정에서 만흔참가가잇기를 바란다한다

時日 九月七、八、九三日間

場所 仁川武道館

種目 東洋及西洋料理製菓法

資格 新舊家庭의 十六歲以上女子에限함

定員 六十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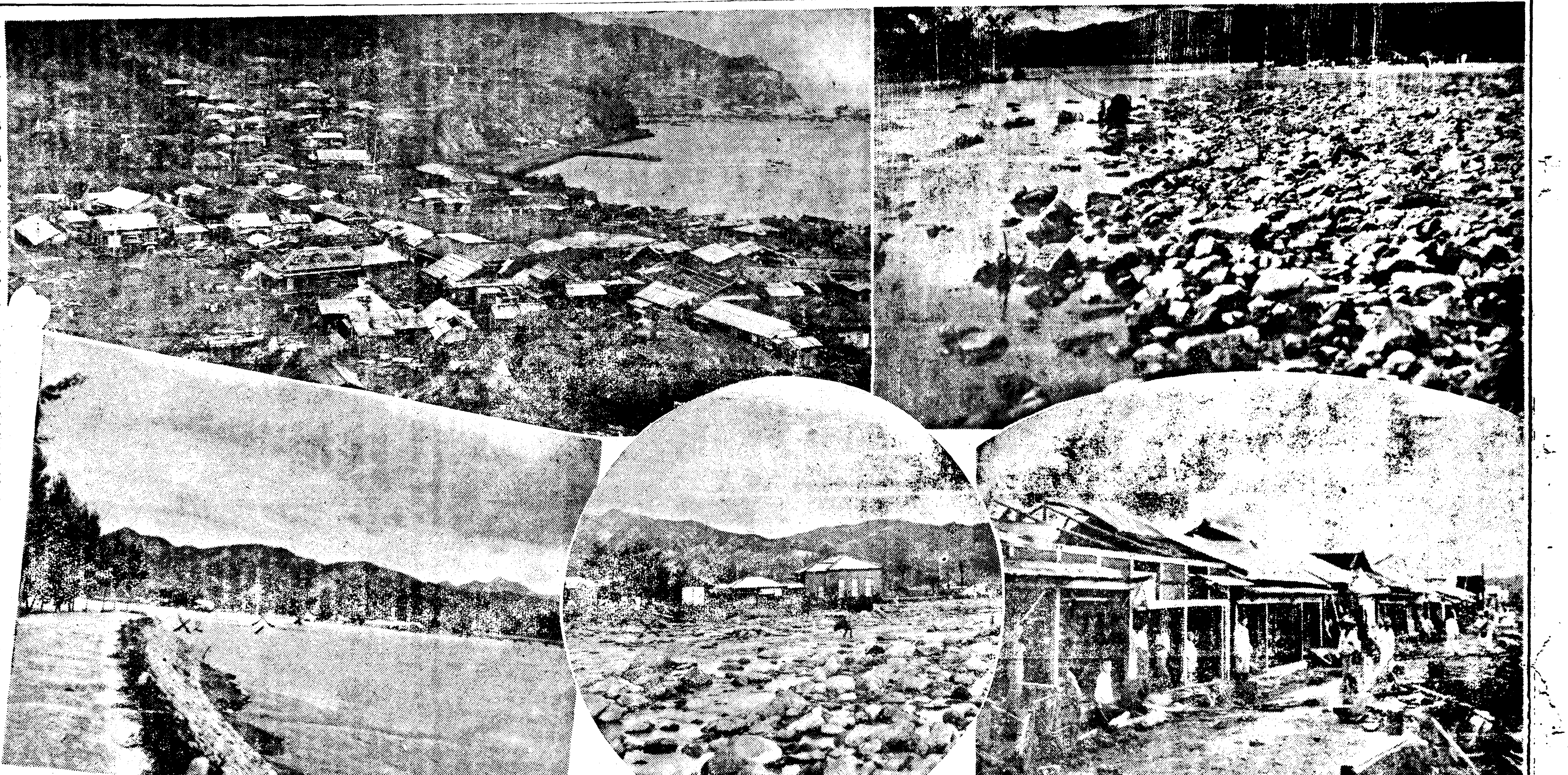
準備 접시一個 紛筆一個 冊一卷

會費 無料 (但材料代一日三十錢)

式場品은各自持去

申請 朝鮮日報仁川支局

慶南北風水災畫報



石田으로化한高靈平野一部(右上) 三千浦海岸通(右下) 南海市街의一部(左上) 陝川郡冶爐市場(左下中央)

●朝鮮唯一의藥

醫學博士 KODERA 推奬

萬病藥水

藥效顯著 與論證明

EBISU FUKUHOO

補材藥水 解毒 身體强壯、神經衰弱、半身不隨關節痛 其他强壯劑

에비수疥瘡膏 金五十錢

에비수補材膏 金五十錢

에비수金鷄納金 一圓 二圓

胃腸病良藥 비수사로-루

淋病藥 超越淋藥 ¥5.00

痔病良藥 痔疾劑 五〇錢

▲藥品注文할時는(반다시) 釜山府本町五丁目 에비수藥院 EBISU 振替釜山二三四番 이라고써서、明지하여주시요

▲偽造藥에注意! 丸藥、粉劑를마베약수라하고販賣하는者가잇소 水藥、丸藥이마베약수가眞正品

金.銀.白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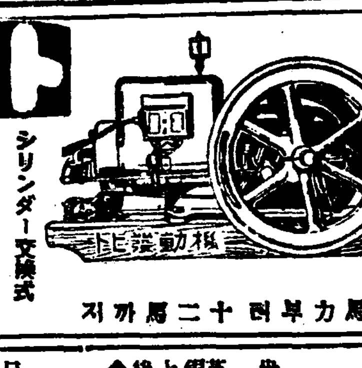
福

株式會社 石福商店 平壤出張所 平壤府旭町

本店 東京市下谷區練塀町

農林省御推薦機

ヒト輕油發動機



シリンダー文橫式

二馬力부터十二馬力까지

燃料節約·取扱簡單

出馬力强大·堅牢無比

(在庫豐富 型錄進呈)

鮮滿配給元 土肥發動機釜山出張所

釜山府大倉町一丁目 電話長一二六九番

八月卅九日封切 生涼九月第一週特別興行

每日三回 (午前十時 午後一時半 六時半)

◆英國BIP超特作映畫 音樂指揮、學生말콤시 젼스博士 名匠세실루이스監督 돌·마 마그리타·나마라 主演 世界的歌劇 갈멘

英國映畫史上空前의壯擧、本年度映畫界의一大에폭이될名作、아以上의完全無缺한歌劇영화再現은今後에도萬無하리라(本社獨占封切)

◆JO、超特作映畫 原作脚色—西條八十 監督—永富映次郞 勝太郞の子守唄

日本빅타名歌手로全日本을席捲中인勝太郞의자장가完璧에各가온그목소래、다시 드를거운勝太郞의半生을그린는作(本社獨占封切)

◆에이스社特作映畫 세이·서·쿠監督 妖鬼잉야

最近에보기드믈게소름끼처나는映畫 어려케慘酷하고 무서운다 서히트中인問題의妖鬼잉야

團成社

九月一日晝間부터三日間大公開 三大巨彈映畫封切

每日三回晝夜興行 正午十二時부터六時까지續映 夜間八時始映

大衆料金階上十五錢階下十錢均一

松竹大超特作品네오·소바發聲 佐佐木啓祐氏監督 現代名篇 お美美の評判

靜田錦波氏解說 토키- 主演高杉早苗嬢

梗槪 大都會라는곳은罪과害毒의蜜房에山禍와人生의戰鬪이다그戰鬪에疲困한本性들의거러가는오즉하나이다お美美도亦是會엔本性의한사람이엿다!!

콜럼비아社超特作全發聲 冒險活劇 孤軍奮鬪 飛人빌맛고이氏主演 D로스레마만氏監督

막그선넷트社作品無聲映畫 快笑活劇 無理矢理뻔다-빈 뻔다-빈 主演

鍾路五丁目 第一劇場 電話光一二五番

登錄商標

고무신은거북선

京城東大門外서울고무工社 電光一一五九

山下テント

釜山大倉町 電話三四四番

カタログ進呈

創立明治參拾貳年

株式會社 朝鮮商業銀行

頭取 朴榮喆

專務取締役 堀正一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

支店 出張所 京城南大門、同鍾路、同東大門、同本町二丁目、同本町四丁目、龍山、仁川、平壤、利川、淸州、群山、全州、裡里、長興、康津、統營、馬山、鎭海、釜山本町、同牧ノ島、同富平町、同草梁、麗水、方魚津、元山、永興、咸興、咸川、淸津、羅南、會寧、沙里院、信川、新義州、定州、平壤、同大同門、鎭南浦、載寧

自宅で儲かる

副業本業

◎專屬製造者募集

가장安全確實히된다

僅少한資本으로一家安全하게되는前途有望한일은勿論하고副業又는本業으로婦女子에게도便利하게되는年中無休永久계속

◎◎◎同業販賣者의直接地方에따라獨占的事業이된다

◎製品은弊店에서永久取引함

◎素人도可하니眞實한分의申込次第送付함

◎見本及案內書無代進呈함

大阪市港區市岡元町四丁目拾參番地

マルハマ紙工業所 電話西六二四〇番

産業

農家戶數增加
昨年三百六萬餘戶로
前年對比五萬餘戶增

昨昭和十年中의 朝鮮農家戶數를 보면 三百六萬六千四百八十九戶로 前年보다 五萬三千三百八十五戶의 增加를보앗는데 道別로보면

日本內地人	八、四一九戶
朝鮮人	三、〇五八、四三一戶
滿及中人	二、六三九戶
合	三、〇六六、四八九戶

이고 專業、兼業別로보면

專業	二、九〇九、六四九戶
兼業	一五六、八四〇戶

로 前年에比하야 專業이 五萬九千百九戶 兼業이 五千七百二十四戶가 各히 增加하엿다 또 道別로보면 全南의 三十九萬七千九百九十四戶가 最多하고 그다음이 慶北의 三十六萬戶 慶南의 二十九萬戶 忠北、平南、咸南은 各十萬戶臺이고 咸北의 七萬九千戶가 最少하다 이를朝鮮總戶數에 對한 百分比로보면 合計에잇서서는 總戶數百에對하야 七十四戶로 前年보다 一、一戶의 增을보앗고 道別로보면 江原道의 八六、九戶를 最高로 忠南全南全北이 八〇戶 平南、咸南이 六〇戶이고 京畿咸北의 五〇戶가 最少하다 또 一戶當의 耕地面積으로보면 畓〇、五六町步 田〇、九一町步로 合計一、四七町步로 이것을 道別로보면 咸北의 二、八六町步가 最高이고 黃海、咸南의 二、〇〇町步 米作地帶로 最少한곳은 慶南의 〇、九四町步이다

特히 小作農等
貧農이 著增
中堅農家少增은 異彩

農家戶數를 營農別로보면

	戶	百分比
小作	[illegible]	[illegible]
自作兼小作	[illegible]	[illegible]
自作	[illegible]	[illegible]
被傭	[illegible]	[illegible]
純火田民	[illegible]	[illegible]

인데 이로써보아 얼마나 朝鮮農村의 階級構成이 貧農에 偏重되엿는가를 알수잇거니와 다시 前年에比하면

小作農	二七、一四七戶增
自作兼小作	一七、二一五戶增
自作農	五、二九二戶增
被傭農	八、五四六戶增
純火田民	四、八一五戶減
差	五三、三八五戶增

인데 그中에서 小作農과 被傭農이 數로서 第一만흔것은 亦是朝鮮農村의 疲弊의 現象이라고 볼수잇다 그러나 그中에서 今年減少만되든 自作農이 數는 적다해도 五千餘戶가 增加되고 또 自作兼小作農도 一萬七千餘戶나 增加한것은 數年來로 比較的農產物의 高騰等으로 農家經濟에 多少景氣가 回復되엿든 現象이라고 볼것이다

奉化秋蠶掃立增加

【奉化】奉化郡蠶掃立은 今春에 蠶市勢가 好調를 示하야 當郡 昨年度秋蠶掃立枚數는 三千三百二十五枚이엇는데 今年秋蠶은 三千四百八十枚를算하야 百五十枚의增加를 보게되엇스나 山中地方은 例年보다 減한곳도잇다

忠北秋蠶掃立狀況

忠北道內의 今秋蠶掃立은 客月十五日부터 開始할 豫定이든바 水害때문에 蠶種輸送이 늦어저서 永同、沃川兩郡은 廿日、其他大部分은 廿五、六日에 掃立을하얏는데 被害가 가장甚한곳은 廿八、九日頃에 되엇모양이다 當初는 水害때문에 掃立枚數가 五%가량 減收되리라고하든것이 今年減少만되든 ...

朝鮮과 油脂工業
中小工業으로興味잇는것몃가지 (一)
安東赫

油脂類는 動植物界에亘하야 널리 分布된것이오 그應用도 吾人生活上 極히 重要且廣汎한것임에도 不拘하고 比較的 一般의 認識이 薄弱한것은 特히 朝鮮과가티 油脂資源伸張의 可能性이 豐富하고 且 比較的中小工業으로도 此應用工業의 一部分이 能히 特色을 發揮할수잇는 點으로보아 遺憾으로생각한다

世界油脂事情

于先 油脂生產 及 利用에關하야 其世界的大勢 日本의情況 及 特히 朝鮮中小事業者로 興味잇는것 若干을 選擇記述하야 讀者諸位의 若干이라도 注意를 希望하는바이다 世界의 油脂類의 年產額은 約八百五十萬噸의 巨量으로그 三〇%가 食用으로 消費되고 四〇%가 石鹼製造用 二〇%가 塗料製造用 一〇%가 印刷用잉크原料用、香粧品 其他 纖用에 充當되고잇다

油脂라하면 우리는 魚油 又는 胡麻油를 普通聯想하며 且 魚油系統이 多量으로 生產되는줄생각하지만 實狀은 左記統計表에 指示한바와가티 植物性油脂가主다

▲世界重要油脂生產表

一、植物性油脂 七、〇一九、八〇〇噸

◇落花生總生產高 四、一六〇千噸
搾油出廻豫想高 一、一三〇千噸
採油率 六三%
主產地 佛、獨

◇棉實 總生產高 七、三四〇千噸
搾油出廻豫想高 六、〇〇〇千噸
採油率 一八%
油生產高 一、〇八〇、〇〇〇噸
主產地 米、英、埃及

◇油椰子 總生產高 一、二四五千噸
搾油出廻豫想高 一、二三〇千噸
採油率 六三%
油生產高 七七四、九〇〇噸
主產地 米比、佛、獨、英、蘭

◇棕梠 總生產高 五〇五千噸
搾油出廻豫想高 六〇〇千噸
採油率 四五%
油生產高 二二五、〇〇〇噸
主產地 英、獨、和

◇亞麻種子 總生產高 三、三一一、五〇〇噸
搾油出廻豫想高 二、八〇〇、五〇〇噸
探油率 三〇%
油生產高 八四〇、〇〇〇噸
主產地 米、和、獨、英、佛

◇橄欖實 總生產高 三、八〇〇千噸 搾油出廻豫想高 一、三〇〇千噸 探油率 五〇%
油生產高 六五〇、〇〇〇噸
主產地 西、伊、希、佛、北亞弗利加

◇大豆 總生產高 五、七四五千噸 搾油出廻豫想高 四、二五〇千噸 探油率 一五%
油生產高 六三七、五〇〇噸
主產地 獨、滿、中、米

◇向日葵 總生產高 二、五〇〇千噸 搾油出廻豫想高 一、一二五〇千噸 探油率 三〇%
油生產高 三七五、〇〇〇噸
主產地 露西亞

◇菜種 總生產高 一、二〇〇千噸
搾油出廻豫想高 八〇〇千噸
探油率 三五%
油生產高 二八〇、〇〇〇噸
主產地 伊太利

◇胡麻實 總生產高 五八五千噸
搾油出廻豫想高 四九〇千噸
探油率 四五%
油生產高 二二〇、五〇〇噸
主產地 日本、伊太利

◇荏胡子 總生產高 一八七千噸
搾油出廻豫想高 一七〇千噸
探油率 四二%
油生產高 七一、四〇〇噸
主產地 歐洲、米(原料는熱帶地方)

◇桐實 總生產高 二五〇千噸
搾油出廻豫想高 二二六千噸
探油率 三〇%
油生產高 六五、〇〇〇噸
主產地 中國

◇玉蜀黍總生產高 二、五〇〇千噸
搾油出廻豫想高 九〇〇千噸
探油率 四%
油生產高 三五、〇〇〇噸

◇其他油脂類 九〇、〇〇〇噸

二、動物性油脂 一、三九七、六〇〇噸

◇豚脂 生產高 六〇〇、〇〇〇噸
主產地 米國

◇牛脂生產高 二八〇、〇〇〇噸
主產地 米、濠洲、亞爾然丁

◇鯨油生產高 四一三、〇〇〇噸
主產地 南氷洋

◇魚油 生產高 一〇四、六〇〇噸
主產地 米、日、諾威

上記統計를 要約하여 보면 固體脂肪 約九十萬噸(全生產量의 一一%)半固體脂油 百萬噸(全生產의 一二%) 液體油脂六百五十萬噸(全生產의 七七%)인데 固形脂肪類의 需要는 約三百萬噸임으로 固體脂肪의 供給不足 때문에 固形脂肪의高價의原因及 油脂硬化工業이 發達된 理由를 누구나 容易히 짐작할수잇을것이다

그다음 油脂의 性質別로 上記統計를 觀察하여보면

◇乾燥性油 九一五、五〇〇噸
全生產高의 一八%

◇半乾燥性油 三、二〇五、六〇〇噸
全生產高의 三八%

◇不乾燥性油 三、五七一、三〇〇噸
全生產高의 四四%

인데 우리의 利用方面으로보면 乾燥性油三〇%以上을 要함으로 此亦 供給不足이다 아즉 代用品製造에 成功치못하엿스나 合成樹脂、纖維素塗料界의 驚異的發展을 遂한 遠因의 一은 此點에잇슴은 勿論이다.

自然은自然——宇宙全體에合當케 構成된것이오 사람의利用을 爲하여 構成된것이 안이다 따라서 좀더 自然法則을 硏究하여서 좀더 自然法則에 갓가히 合致된 生活을하기에 努力하는것이 吾人生活의 窮極理想이다 生物界의 [illegible] 油脂의存在와 此利用價値와의 [illegible]을 調和하는것도 自然科學者의 任務일뿐만아니라 經濟界에對한 一重要課題인것은 贅言을 不要한다. (續)

豐富한油脂資源
開發·工業化計畫
中試에서研究費要求

日本重要工業의 一인油脂工業은 그原料의 大部分(年額約七千萬圓以上)을輸入하고잇고 또年額 二千萬圓以上의 製岸의 入超를 보고잇는 現狀이다 그런데朝鮮에는 東海岸의 魚油를 비롯하야 各種植物性油脂原料가 豐富하나 그利用方法이 充分치 못하야 이러한 有用한 原料를 死藏 又는 放棄되고잇슴에 鑑하야 總督府中央試驗所에서는 그化學試驗을 實施하야 朝鮮의 油脂資源의 特質及用途를 明白히하야 그開發을하야써 油脂資源의 自給과 油脂工業의 基礎를 確立함에進出하는 同時에 農山漁村의 多角的營農化에 資할計畫으로 그研究費를 明年度豫算에 要求中이다

自然上簇法
試驗成績頗良好
解舒良好糸量增加

蠶絲界에 喜消息—群馬縣北甘樂郡福島町組合製絲古川組에서는 自然上簇法을 組合員百八十名에게 實施한 結果 다음과가티 자못優秀한 成績을어더 解舒率도 非常히조화서 絲量이 斷然良好하다한다

(單位匁)

	生繭一貫當絲量	座繰一時間繰絲量
從來方法	一一二	一〇、〇
自然上簇A	一五〇	一三、〇
同 B	一三七	一四、九
同 C	一四七	一三、一
同 D	一四〇	一三、五

이自然上簇方法은 改良簇에크레조ー루百倍石鹼液을 使用하야上簇蠶의 統制를 行하는것인데同組合의 今年初秋蠶은 絲量이만허서 그收繭量二千五百貫을從來式上簇의初秋蠶 四千五百貫에匹敵되는 絲量이 잇다고하며그와 同樣의 實際試驗은 富岡蠶業取締所에서도 行한바 好成績을어덧슴으로 이自然上簇法은 今後크게期待되는터이라한다

日本內地大資本
『코ー스』北中으로
重要產業統制法朝鮮施行으로

朝鮮의工業勃興의 重大한主因은 日本內地大資本家들이 朝鮮에進出한데잇는것이엇는데 朝鮮進出의原因은朝鮮이 統制圈外에잇섯든때문이나 朝鮮도重要產業統制法이 施行케되엇슴으로 日本資本家는 朝鮮에進出함을 躊躇케되고 참아리北中에 進出코저하는 模樣이라는데 北中은 朝鮮에比하야

1、勞賃이더싸고
2、大消費地인것
3、原料生產地인것

等에依하야 適例로는 東洋紡績會社와如함도 朝鮮進出을中止코 北中에 進出할 形勢가잇다는데 日本內地大資本家의『코ー스』朝鮮으로부터 北中國으로方向을轉換함갓흔 朝鮮產業躍進을떠드는 이때에잇서 注目되는現象이라한다

豐基蔘業組合定總

【豐基】豐基의 人蔘이라면 그價値가 널리 海外에까지 떨치게되여 해마다 그生產과 需要가 激增되은 地方產業界를 爲하여 蔘業組合에서는 今年들어 새로히 乾燥場을 新築하는等 內外의 事業을 一新하기에 힘쓰든바 지난 二十日前記 乾燥場이 落成됨을따라 事務所를 移轉하고 年例에 依하여 定期總會를 지난三十日에 開催하엿다는데 [illegible] 圓滿히 閉會하엿다

新會社를創立
工業地를買收
平南振興會工業起案

平南振興會의 工業起案으로서 平壤에 適當한 工業地區를 定하고 大大的으로 買收하야 將來 大工場을 誘致코저 府當局의 起償으로서 買收케하자는 計畫은 府當局으로서 計畫案그것에對하야 異論은 업스나 起償의 償還財源이 업슴으로 實行不可能으로보임으로 振興會에서는 更히 適當한 計畫을 硏究하고잇는데 當初의 目的을 達成키爲하야서는 府當局이 豫算의 關係上 不可能하면 會社를 設立하고 他有力會社와 關係를 매저 이에買收케하야 어듸까지던지 平壤發展에 邁進키로할意見도잇서 會社創立에依할 境遇는 府로부터는 참아리 彈力性잇고 또 支障이업시 充分히 發展을 遂行할수잇슬것으로 漸次 이意見이 有力해지는데 何如間 이計畫은 平壤發展을 目的하는것이만큼 注目되리라한다

咸南粟栽培好績

咸南道高地帶의 罌粟栽培面積은 目下 二百餘町步에 達하야 同時 城內의 農民救濟上 多大한 役割을 演出하고잇다한다 即罌粟栽培의 昨年度의 收入은 實로 四十四萬圓을 突破하얏스며 더욱 同地帶는 極히 土地가 肥沃하야 罌粟栽培에는 最適의 地로 段當二、三十圓의 收入이잇서 今後부터는 더욱 道當局에서 栽培를 奬勵하리라고한다.

平南秋蠶掃立減少

平南道의 秋蠶掃立은 이미開始되엿는바 그掃立枚數는 二萬五千八百枚로 昨年에比하야 約一千二百枚餘의 減少인데 그것은 天候가不順하야 桑芽의 發育이 不良하기때문이라한다

青化製錬法 (4)
金聖浩

亞鉛은 金보다 더 漢히 青化液에 溶解되는 性質이잇슴으로 金을 青化加里液으로 溶解한 青化液을 亞鉛에 觸하게할時는 其亞鉛에 金을 沈澱하고 其代身 亞鉛은 溶解하진다 亞鉛消耗의原因을보면

(一)化學作用에 依한것이 아니라 他의 有害한 原因으로 沈物을 沈澱할 時에 完全히 溶解치못한 殘有의 亞鉛粉末이 沈澱金에 混在되어 產出하는 多量의 亞鉛때문에 亞鉛消耗가 만타 (其消耗의 量은 鑛石一噸에 對하야 三〇匁—五〇匁程度) 그러함으로 殘物을 精製할때에 此物을 除去하지 안흐면 안된다

(二)亞鉛은 青化液에 溶解되어서 青化加里亞鉛이되고 또는 물의 分解에 依하야 生하는 酸素때문에 侵蝕함으로 亞鉛이 液中에 溶解하게된다

金이 沈澱할때에 成立되는 青化加里亞鉛은 青化液中에 溶解한後 自作으로 分解하야 青化加里를 生하고 다시 金을 溶解하는 作用을한다 그럼으로 數年을 繼續하야 工場을 稼業하는 青化液은 늘 亞鉛을 溶解함으로써 多量의 亞鉛을 其中에 集積하게될것이지만 實際에잇서서는 그러치 안코 青化液으로써 鑛尾를 出할때 硫化物의 存在에依하야 成生하는 硫化加里가 青化加里亞鉛때문에 硫化亞鉛과 青化加里를 生한다

此際硫化亞鉛은 鑛尾中에沈澱하고 青化加里는 다시 金을溶解하는 作用을 하는것이다 그러므로 青化液은 反復使用을 하드래도 亞鉛分의 集積을招來하는일이 업슬뿐이니라 其金銀을 溶解하는힘도 亦是 復活함을 볼수잇다

滲出青化法施設及作業法

滲出青化法에 適當한 鑛尾는 上述한바 青鉛鑛、黃鐵鑛、黃銅鑛等의 硫化金屬의 含有量이 僅少하고 約三五目篩를通過한것이지만 金粒의 粗細에 關係됨으로 一定치안타

滲出青化用『탕크』는 木製又는 鐵製板으로 製造함이 普通이고 또는『콩크리ー트』로된것도잇다 一定한 場所에서 長期使用코저할에는 세멘트로製造하고 移動式으로하는에는 木製를 使用함이 普通이다

形은 角形 及 圓形인데 製造上 角型이 便利하지만 操業上에는 圓形이 合理的이다 鑛砂를『탕크』에 裝入함에는 底에 經一寸쯤되는 石을 七八寸쯤까려노코 그우에 粗砂를 二、三寸쯤넌後 布等가튼것을 덥고 그우에 鑛尾를 裝入한다 鑛尾上에 石灰의 溶解한 液 或은 石灰를 撒入한後 青化加里에 溶解한 青化液을 注入한다

石灰의 量은 普通 鑛尾에 對하야 千分之三(鑛石一貫에 對하야 三匁)青化加里의 量은 鑛液에 對하야 千分之一(水一噸에 對하야 約二瓩) 小規模作業에는 普通青化鑛(五貫入)一箱의 青化加里를 水에 十分의 溶解하니 此를 注入하면 適當하나 此를 標準으로하야 鑛石性質에따라 加減調節함이 必要하다

濃度를 測定함에는 硝酸銀液으로써 青化液의 濃度를 測定하는것인바 方法은 前과 如하다

青化工場設計에 必要한 溶槽의 大小 又는 個數는 一日에對한 砂鑛取扱量及 一槽의 處理時間等에依하야 決定한다 溶槽의 大는 處理할만한 砂鑛量을 每一日에 裝入하도록함이 便利하다 그럼으로 每日五〇噸의 砂鑛을 取扱하고저하면 一槽의 處理에 五日間 五個가 必要하고 豫備一個合六個의 設備를 要한다 第一日부터 第五日까지 五槽에 順次로 鑛尾를 裝入하고 第六日에 第一槽에 金液을 滲出하야 亞鉛函에 導注하고 液이 完全히 滲出된後에 鑛尾를 排出식히고 新鑛尾(原鑛尾)를 裝入한다 如此하야 一日一槽式 取扱을 完全하게한다 亞鉛函內의 沈殿은 一個月一回又는 二回(含有量에따라)式 此를 取出하게되나 이때에는 青化液의 流入을 停止하고 函內의 青化液을排出한後 水 又는 明礬水로 亞鉛絲를 洗滌하고 亞鉛絲를引揚하야 沈殿物을分離採取케한다 亞鉛絲는 時時 新亞鉛을 加入한 水中에洗滌하고 亞鉛絲가 잇슬때까지 長時間使用할수잇다 亞鉛은 第二區에서 第一區에 繰上하고 新亞鉛을 裝入하게되는것인데 新品의 裝入은 最後區 即第六區에한다 以上 作業은 極히 注意하야 激動及 亞鉛絲屑片이 流失되지못하게하며 最終亞鉛函 掃除時에는 亞鉛屑片 及 沈殿物은 全部 硫酸을 溶解한後 乾燥하야 黑鉛坩堝로서 爐에 溶解하야 金을 回收한다 詳細한것은 次編實地作業에서 記述하고저한다

滲出青化製錬實地作業法

實地作業의 細細한것은 鑛石의 性質 及 地方의 習慣等에依하야 多少다르나 大體로 溶解作業法、沈澱作業法 及 滲物處理法、精金等으로 分類할수잇다

(1)溶解作業法

溶解作業이라함은 溶解槽([illegible])中에 鑛尾를 裝入하고 此에 適當한 濃度의 青化液을 注入하야 鑛尾中에 含有되어잇는 金銀을 溶解하게하는 作業을말함이다 該作業順序로는 (一)鑛尾裝入、(二)藥液注入及中和劑의添加 (三)金銀의溶出 (四)青化液(鑛尾)의排出

(2)鑛尾裝入

滲濾槽(溶解槽)에 鑛尾를 裝入하는 方法은 直接裝入法과 間接裝入法과의 二法이잇다 直接裝入法은 搗鑛機에서 排出되는 泥漿를 配鑛器에依하야 直接滲濾槽에 流入하게하야 搗鑛機排出物中에잇는 泥의部分을全部 滲濾槽上部周圍에 裝置하야잇는 溢流樋에溢出하게하고 砂鑛만은槽內에 沈積充滿하게한後 流入을中止하면되다、普通使用하는配鑛器는 바ー텐式을 採用한다 間接裝入法은 搗鑛機에서流出하는 鑛尾를 먼저 沈澱池에導入하야 沈澱除水한後에 搬出하야 人背一輪車『도로고』等運搬法에 依하야 砂鑛을 運搬하고 滲濾槽의 直上으로부터裝入한다 沈澱池의 容量은 [illegible]하게하야 鑛尾가沈澱池에서 流出하지안케 하야 鑛尾를 沈澱池에 溜한後에 滲濾槽에 裝入할때는 砂鑛과 泥鑛이 어느程度까지 自然히分別됨으로 砂鑛에混入한 泥鑛의量을 適當히 加減할수잇슴뿐아니라 石灰를 裝入하는同時에 適當히 調合混和할수잇다 그러나 鑛尾를 長時 沈澱해두는 關係上 鑛尾中에 硫化鑛物이 多한 鑛石이면 風化分解하야 青化製錬에 有害한 硫酸鹽을 生成함으로 注意할것이다 鑛尾中에 硫化鑛物이 만흐면 沈澱 或은其他方法으로 될수잇는대로 硫化鑛物을 除去한後에 處理함이 有利하다 小規模의 製錬場에서는 沈澱池에 沈積한 鑛尾를 適當한 場所에 運搬하야 널리펴서 相當히 乾燥한後에 篩에처서 鑛尾粒이 各各分離하게 하고 滲出槽에 添加할 石灰粉의 一部를 [illegible] 滲濾槽에 裝入하게한다 其石灰의 量은 鑛石性質에 따라서 不同하나 滲濾槽內의 實例를보면 鑛石一噸에 對하야 約六〇〇匁가 普通이다 如斯히하면 泥鑛이 多少混入하야잇슬지라도 砂鑛과 混合됨으로 滲濾速度가 그다지 不良치안흘것이다 그러나 泥鑛의 比는 一割以上이 되지안토록 注意하여야한다 以上과如히 準備해논 鑛尾를 滲出槽에 裝入함에는 먼저 槽의 底에 砂石을 置하고 其鑛上에 布를 깔어서 鑛尾가 새지안케하고 槽의 上部에 棧橋를 設하고 前述함과 如히 鑛車나 人背等에 依하면 運搬裝入하되 棧橋에서 格子上에붓고 삽으로써 適當한 量의 石灰를 散布調合하면서 格子를 通하야 落下裝入하야 槽의 上端下 三寸 乃至五寸까지 達하도록 充滿하게한다 大規模의 鑛山에서는 搗鑛鑛尾를 直接 集砂槽에 流送하야 砂鑛과 鑛尾를 分離하고 砂鑛만을 集하야 滲出槽에 移入하게함이 普通이다

▲八月中米、粟輸移出入高

米輸移出高 (玄米換算單位石)

	今年輸出	前年輸出	今年移出	前年移出	今年合計	前年合計
上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中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下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一月以降累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米輸移入高 (單位石)

	今年輸入	前年輸入	今年移入	前年移入	今年合計	前年合計
上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中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下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一月以降累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粟輸移入高 (單位石)

	今年輸入	前年輸入	今年移入	前年移入	今年合計	前年合計
上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中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下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一月以降累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用商品市況

京城 (九月一日)

◇菜蔬類

品名	單位	價格
고구마	一貫	[illegible]
토란	同	[illegible]
馬鈴薯白	同	[illegible]
人蔘	同	[illegible]
蓮根	同	[illegible]
生薑大	同	[illegible]
同小	同	[illegible]
수박	同	[illegible]
胡瓜	百個	[illegible]
茄子	同	[illegible]
일년감	一貫	[illegible]
시금치	同	[illegible]
쑥갓	同	[illegible]
南瓜	本箱	[illegible]
玉葱	十二貫	[illegible]
青葱	一貫	[illegible]
미나리	一把	[illegible]
마늘	百個	[illegible]

◇菓實類

品名	單位	價格
苹果 國光	四貫	[illegible]
同 旭	同	[illegible]
同 祝	同	[illegible]
梨 早生赤	三貫五	[illegible]
同 今村秋	三貫五	[illegible]
同 晚三吉	同	[illegible]
夏蜜柑	同	[illegible]
바나나	一貫	[illegible]
栗	一斗	[illegible]
잣	一石	[illegible]
실백	一斗	[illegible]
胡桃	一石	[illegible]
銀杏	百斤	[illegible]
고추	百斤	[illegible]
고추가루	同	[illegible]
실고추	同	[illegible]
大棗	百斤	[illegible]
乾蓮根	一斗	[illegible]
生落花生	百斤	[illegible]

◇家畜飼料

品名	單位	價格
豆餅乾粕	十貫	[illegible]
成鷄用練餌	五斗	[illegible]
育雛用	同	[illegible]
中雛用	同	[illegible]
雛虫用粉	二套드	[illegible]
麩	百斤	[illegible]
玉蜀黍碎	九十斤	[illegible]
同 中割	同	[illegible]
同 粉	同	[illegible]
高粱碎	同	[illegible]
同 粉	同	[illegible]
魚粉メ粕	十貫	[illegible]
粃	八五斤	[illegible]
糠 殼	百二十斤	[illegible]

◇毛皮類

品名	單位	價格
앙고라兎毛 三吋半以上	一匁	[illegible]
同 三吋以上	同	[illegible]
同 二吋半以上	同	[illegible]
同 二吋以上	同	[illegible]
同 一吋半以上	同	[illegible]
同 桃毛	同	[illegible]
펠트	同	[illegible]

◇養鷄用鐵網

品名	單位	價格
四尺幅 二寸目	百斤	[illegible]
同 一寸半	同	[illegible]
同 一寸目	同	[illegible]
三尺幅 二寸目	同	[illegible]
同 一寸半	同	[illegible]
同 一寸目	同	[illegible]
同 五分目	同	[illegible]

◇川魚類

品名	單位	價格
영어	一貫	[illegible]
붕어	同	[illegible]
미꾸리	同	[illegible]
뱀장어	同	[illegible]
메기	同	[illegible]
가물치	同	[illegible]
자라	同	[illegible]
蜆貝	一升	[illegible]

◇家畜類

品名	單位	價格
鷄卵	百個	[illegible]
同	一貫	[illegible]
生鷄	同	[illegible]
生豚	同	[illegible]
生兎	同	[illegible]
四季鳥卵	百個	[illegible]
鶉卵	同	[illegible]
蜂蜜	一罐	[illegible]

◇其他副業品

品名	單位	價格
麥稈眞田	一反	[illegible]
經木眞田	同	[illegible]
杞柳	一貫	[illegible]
漆	同	[illegible]
椎茸	同	[illegible]
胡麻油	一罐	[illegible]

【朝鮮副業協會調查】

鑛業權設定·移動

◇鑛業權設定

登錄番號	鑛種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一三三六九	金銀鑛	忠北忠州郡新尼面周德面老隱面	八月三日	京城府八判町 代表者 高恩海 忠州郡新尼面 金容準
一三三七〇	金銀鑛	忠北淸州郡江內面江西面	八月四日	淸州郡淸州邑 閔丙斗
一三三七一	金銀鑛	咸南北靑郡星岱面	八月四日	京城府明治町 小林鑛業株式會社
一三三七二	金銀鑛	咸南北靑郡星岱面	八月四日	京城府明治町 小林鑛業株式會社
一三三七三	金銀鑛	慶南河東郡古田面赤良面	八月四日	順天郡順天邑 代表者 徐廷祿 同 姜鳳俊
一三三七四	金銀鑛	慶南居昌郡北上面	八月四日	長水郡蟠岩面 代表者 川野傳三郞 同 張秉甲
一三三七五	金銀鑛	江原春川郡東山面東內面	八月五日	春川郡東內面 尹仁子
一三三七六	金銀鑛	京畿驪州郡康川面	八月五日	槐山郡佛頂面 李尙文
一三三七七	黑鉛鑛	咸北城津郡鶴城面	八月六日	京城府岡崎町 石黑淸治
一三三七八	金銀鑛	京畿安城郡三竹面龍仁郡外西面	八月六日	天安郡聖居面 代表者 朴基大 同 金基哲 同 尹京南 同 金應浩 同 [illegible]
一三三七九	金銀鑛	忠北淸州郡米院面槐山郡曾坪面	八月六日	淸州郡米院面 金容國

◇鑛業權移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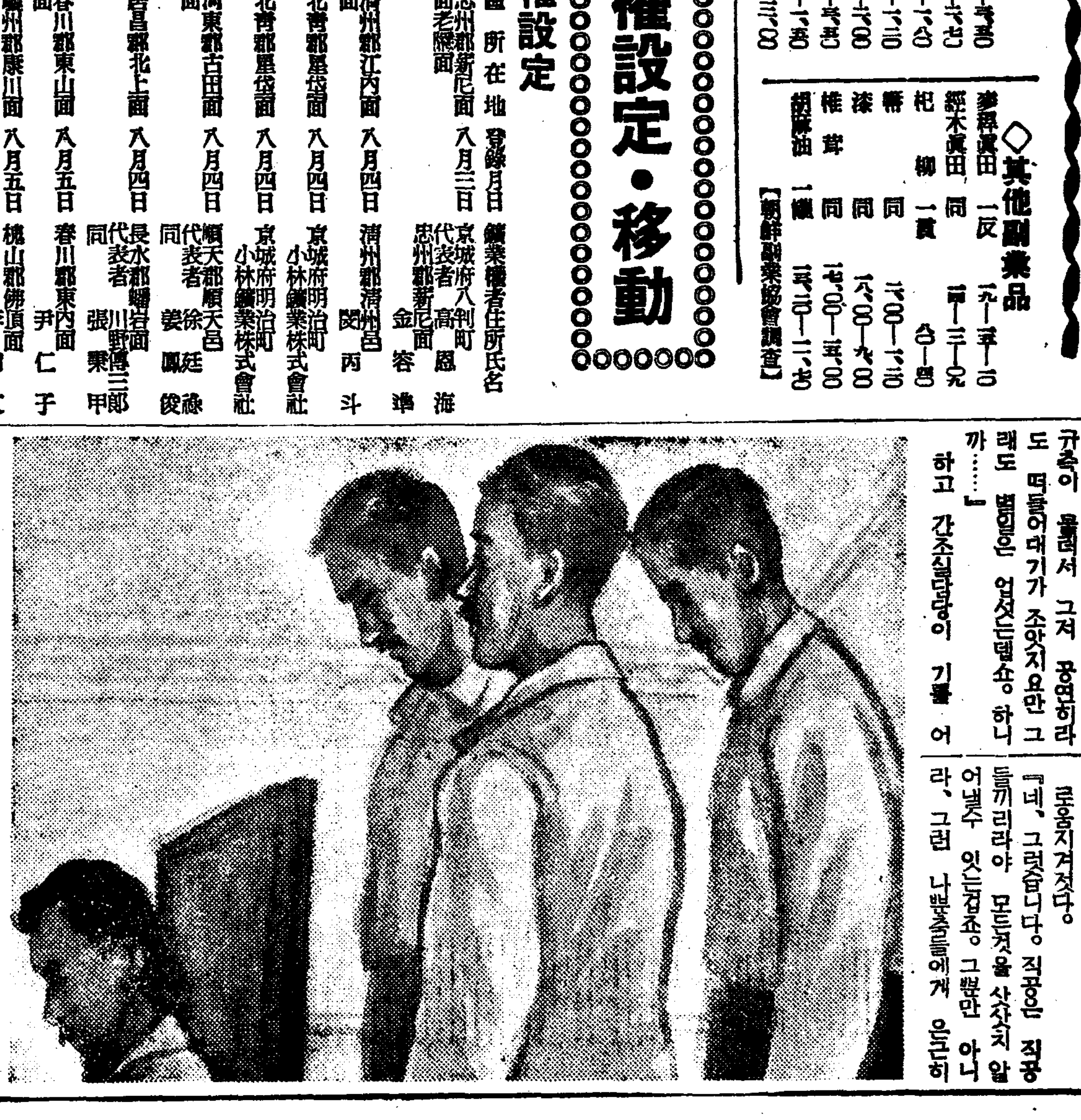
登錄番號	鑛種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九五九九		全南順天郡順天邑	八月三日	長城郡長城面 代表者 金舜德 同 金順權
一二六八二		平北朔州郡兩山面外南面	八月四日	新義州府濱町 橋本楠太郞
一〇〇三四		慶北慶山郡河陽面	八月五日	大邱府北內町 代表者 尹載柄 漆谷郡枝川面 成台慶
九六七六		咸北富寧郡觀海面慶興郡豊海面	八月五日	東京市瀧野川區西原町 神田立治
一〇四八		慶北永德郡柄谷面	八月六日	同永德郡柄谷面 同江口面 代表者 田浴沃 田次慶 朴張亨
七六九九		江原淮陽郡蘭東面	八月六日	淮陽郡蘭東面 代表者 孔弘泰 同 白光圓
四五七五		咸北鏡城郡朱南面	八月七日	鏡城郡朱北面 代表者 同朱南面 土井弥三郞 元山府幸町 藤田長吉 京城府昌信町 中川森助 金應淳

◇共同鑛業權者脫退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四五七五	咸北鏡城郡朱南面	八月七日	高田松之助死亡脫退

◇共同鑛業代表者改定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一三三〇六	平北昌成郡 [illegible]面	七月廿九日	代表者를相續으로改定함
一三二九三	咸南洪原郡雲鶴面	八月一日	代表者를[illegible]로改正함



黃昏 (172)
韓雪野 作
安夕影 畫

대책 (三)

「그전에도 한두번 그런일이 잇섯습니다만 뭐 별일은 업섯습니다?……하두 만은 사람이니까 그러케 주의하건만 그래도 어느모에든 한두놈은 늘 끼여잇는 모양입니다。하지요만 뭐……」

하고 류면실담당은 공자복 무릅을 슬슬 문질러가며 련해서 사장의 눈치를 살피고 잇다。

「그전에도 그런일이 잇섯서?」

사장의 말소리가 의외로 좀 나지젓다。

그리자 여렴은『흥』그말이 흐렴이 잇수나 늘듯이 얼른 그말을 바다가지고 그전 경험으로 보아서 조곰도 념려할거 업다는뜻을 재삼 되푸리를 하엿다。

「그전에야 어듸 지금에다 대겟습니까? 어림도 업습니다。규측이 물려서 그저 공연히 라도 떠들어대기가 조앗지요만 그래도 별일은 업섯든텔쇼。하니까……」

하고 간조실담당이 기를 어더 말하고잇는것을 원동실(原動室)담당이 차다가

『네、그럿슴니다。사장영감께서 해서 그전보다는 원악 규측이 엄해저서 그전보다는 일반공기가 젓가트면 영문도모르고 덩다라 줄석거려할지도 모르지요만、이번은 모다들 얌전하야 전일이나 조곰도 다름업시 일하고잇습니다』

하고 부연해 말하엿다。

그리자 조방실담당이도 안하의자못해다 영령이를 엿게 내걸며 한마듸 섞기엇다——

『그럼요、팬이 심심을 하니까 어느놈이 그저 한번 해보겟단 지요。하니까 직공들은 에당초 참견하려고 들지안는 모양이드군요。가만히 동정을 살펴보니까요』

겸공이의말까지 뭇나는것을 기다려가지고 주임은 여러의 의견을 종합해서、

『사장영감께서도 늘 말슴하는겁지요만、첫재 직공들의 동정을 잘살펴야 할겁니다。그런데도 직공들이 잇다합지요만 그러드라도 직공들이 어느때 어되서무슨 생각을 하고 잇는지……그까지는 사실 알기어렵습니다 거럼요 하니까 무엇보다 직공들중에서 조흔 사람을 골내해가지고……가령 이불러면 동필이라든지 려순이라든지……』

하고 자기의 의견을 베풀자

사장은、

「앗、그러기 내가 언제부터 그걸 말하고 잇섯는가말요? 하니까 금후는……아니 오늘부터 그런방법도 구체적으로 실행해보란말요」

하고 곳 동의를 표하엿다。

사장은 이러케 말하는사이에 문득 려순이를 생각하엿고、그를 불러다가 경사경사 속을좀 뽑아볼것을 함께 생각하엿다。

웨 발서 불러오지못햇든가 하는 후회도 낫고、인제 그는 공장에 무처서 제몸의 정비을 직히라든 한나 어릴때의 고집도、웬만치 버서저버렷스리라는 흥미도 낫다。

정임이에게서 너무 빨리 만족을 어든 사장의 지튼 마음은 인제 새삼스레、너무 늣도록 채여지지못한 녯날의 야심에 로옴지겨젓다。

『네、그럿습니다。직공은 들끼리라야 모든것을 샅샅치 알어낼수 잇는겁죠。그뿐만 아니라、그런 나뿐축들에게 은근히 바람을가지고 잇는 직공이 잇거든요。그런사람이 제보기에는 퍽 만흔것 갓슴니다。하지만회사에서 별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일도 업고하니까 그들도 그저범연히 지나가는겁죠。하니까 인제부터는 그저 말로만 달래여 부지라고 하지말고 다소간 물질적 방법을 써가면서라도 비밀히 단속을 식혀야겟습니다。물먹은직물로 간다고……그래야 일이 쉽게 되겟서요……물론 이러로 간다고하더라도 별일은 업겟지요만、회사는 회사로서의 기정방침이 서잇스니까 이북안으로 예정방침을 착착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꼭 대세를 작정할만한 회사측의 세력을 만들지안흐면 안될겁니다』

주임은 기세를 엇자 말이 술술 쏘다저나왓다。그는 속으로 동필이를 압재비로 쓰려고 생각하엿다。그래서사장이

『그럴수 잇슬까?』

하고 물을때에

『아무렴요、될수 잇슴니다。우선 직공들이 제일 신임할만한 사람을 잡아저야 할겁니다。그래가지고 회사와는 아모 내통이 업시 그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해가며、열사람、스무사람、백명、이백명 ……이러케 끄려내야할겁니다……네、물론 그렇만한 사람이 잇슴니다』

주임은 제낌에 신이나서 말소리가 기붐에 떨렷다。